문화예술공항의 나래를 활짝 펴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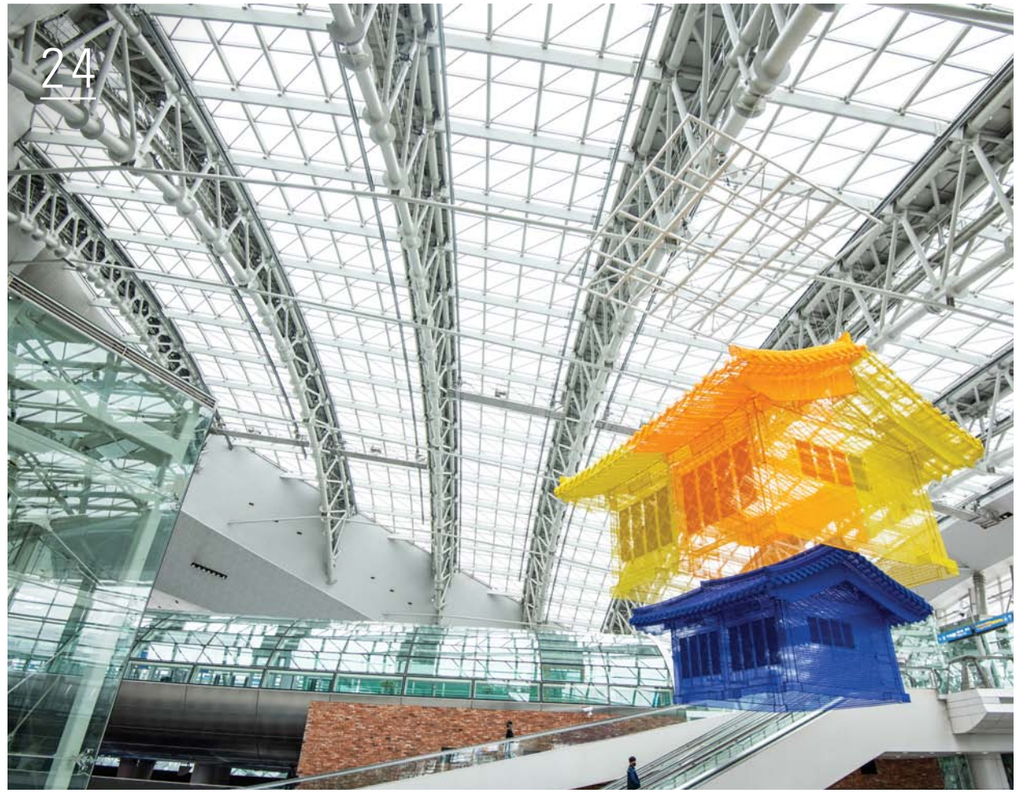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신을 거듭하며
꾸준히 그 가치를 증명해온 인천국제공항은
또다시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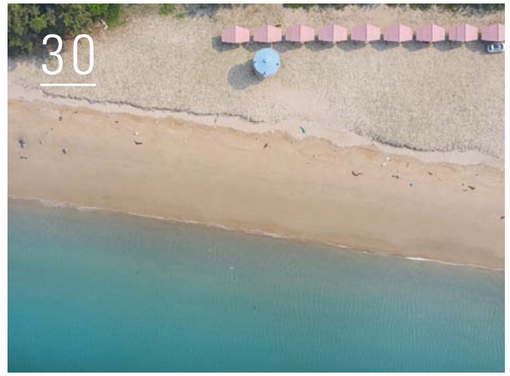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공항'으로의 도약을 선택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목표는
공항을 방문한 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공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날갯짓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한상무





CONTENTS

2020 2nd VOL.72

BEYOND GROWTH

08
Scene #1 Business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예술이 자란다
인천국제공항이
문화예술을 잘한다

14
Scene #2 Interview 1
문화예술공항으로의 새로운 도약
홍보실 김영식 실장

16
Scene #3 Interview 2
인천국제공항을 문화예술로
브랜딩하다
문화예술공항팀

20
Scene #4 Interview 3
디지털 노마드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디자인혁신자문위원회 전기순
위원장

ENDLESS DISCOVERY

24
피플 인사이드
여객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상상력을 품은 이들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팀

30
지금, 여기, 승봉도·사승봉도
잠시, 당신과 나태하게

36
공간 인사이드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리딩 공항에 이르기까지
인천국제공항 역사관

40
아트 인사이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그대에게
생텍쥐페리 소설 <야간비행>

44
City Walk
타히티, 낙원의 또 다른 이름

EXCEPTIONAL AIRPORT

54
Air Focus 1
대한민국의 항공문화 발전을
뒷받침하다
국립항공박물관

60
Air Focus 2
국내 유일, 국내 최초
항공 전문 박물관으로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초대관장

62
Air Lounge
인천국제공항 뉴스

인천국제공항 사보 MORE & BEYOND 2020 2nd VOL.72

계간(비매품) 등록번호 인천중, 바 00008 **발행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발행인** 구본환 **기획·편집**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032-741-2115)
기획·디자인 및 제작 (주)성우애드컴(02-890-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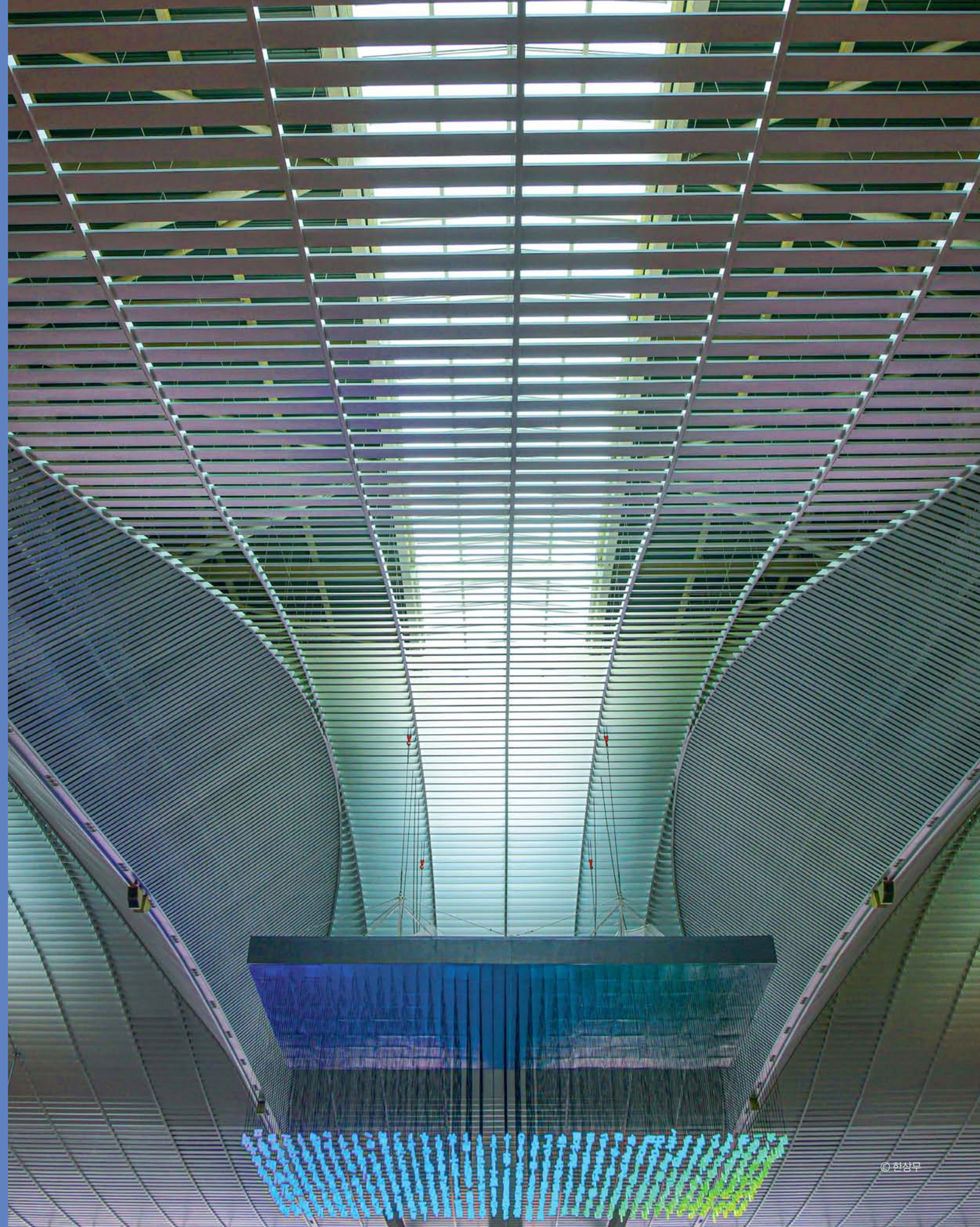
Beyond Growth

08
Scene #1 Business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예술이 자란다
인천국제공항이 문화예술을 잘한다

14
Scene #2 Interview 1
문화예술공항으로의 새로운 도약
홍보실 김영식 실장

16
Scene #3 Interview 2
인천국제공항을 문화예술로 브랜딩하다
문화예술공항팀

20
Scene #4 Interview 3
디지털 노마드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디자인혁신자문위원회 전기순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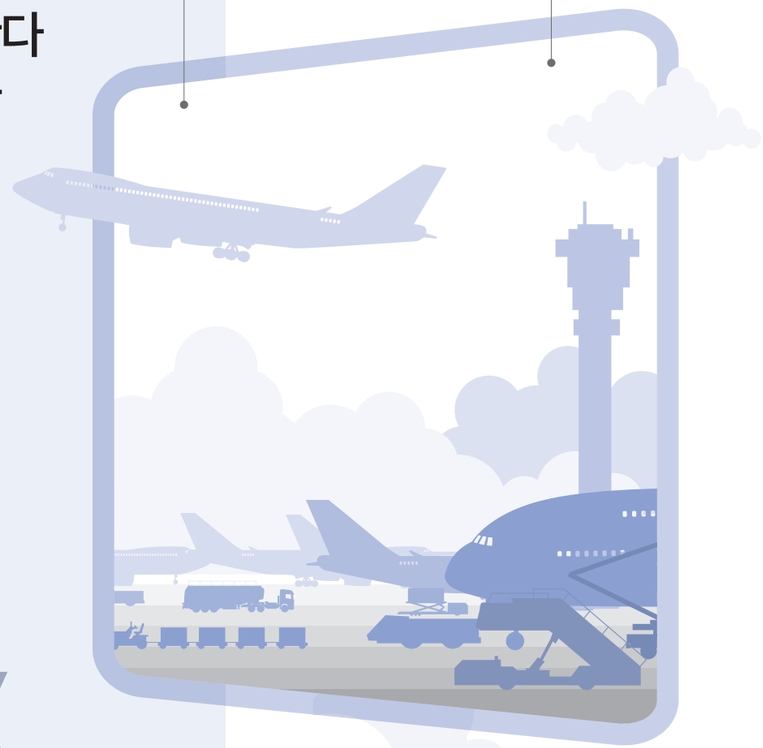
© 한상무

SCENE #1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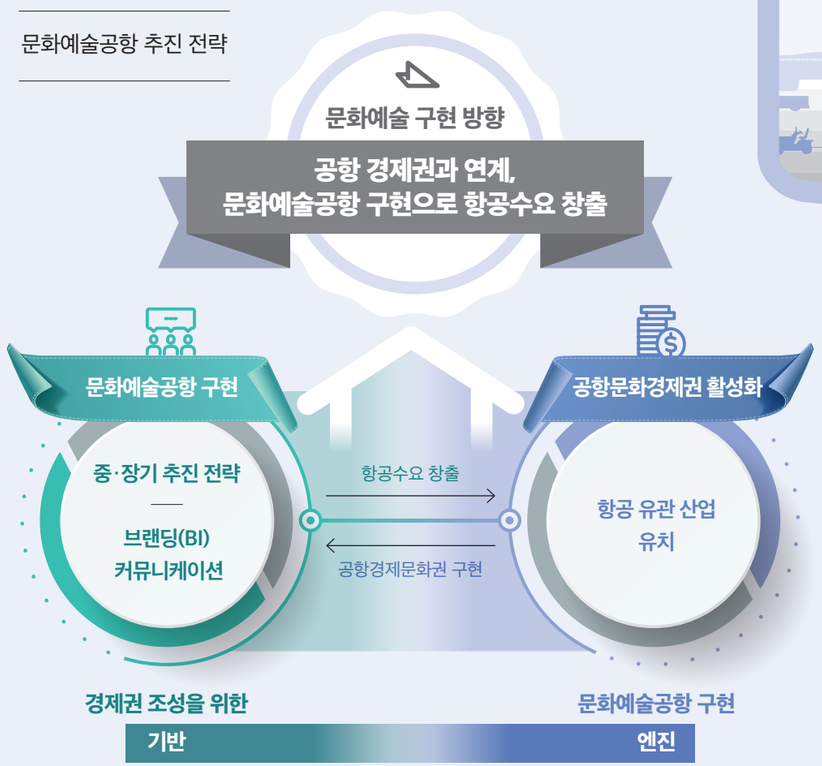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예술이 자란다
인천국제공항이 문화예술을 잘한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인천국제공항이 확 달라진다. 수송과 물류 등 전통적 항공산업의 선두 주자에서 문화예술을 내세운 브랜딩 전략으로 '문화예술 1등 공항'에 도전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공항경제권과 연계해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는 유일무이한 문화예술공항을 만들겠다는 인천국제공항의 꿈, 그 꿈이 이제 날개를 활짝 폈다.



문화예술공항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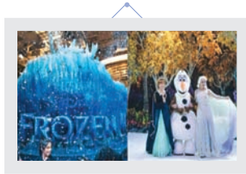
문화예술이 왜 공항에 필요한가

2012년 미국예술연합(AFA·Americans for the Arts)은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예술은 사회 발전의 근간이다' '예술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 '예술은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등으로 문화예술이 어떻게 한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움직이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모든 사업 분야를 망라하는 주요 요소가 된 만큼 인천국제공항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세계국제화물운송 3위, 세계국제여객운송 5위 등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한 이력 뒤에는 이를 벤치마킹하거나 맹추격하는 수많은 공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 특히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등 동아시아 허브공항을 향한 치열한 다툼은 글로벌 항공업계가 주목할 정도로 뜨겁다. 인천국제공항이 강력한 문화예술 브랜딩으로 기존 공항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는 우연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필연인 것이다. 실제로 문화예술을 접목해 죽어가던 사업을 살린 경우는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에서 만년 꼴찌로 꼽히던 금융 회사 H카드는 하등 관련 없을 것 같은 문화를 사업 영역에 접목함으로써 자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외면받던 지하의 대형 쇼핑몰은 리모델링으로 복판에 책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버려진 섬 나오시마 역시 한 기업가의 의지로 지금은 한 해 50만 명이 찾는 예술 섬으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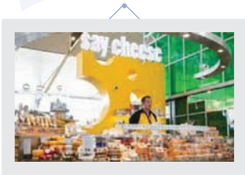
이처럼 문화예술 혁신은 세계 각국의 공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전체를 정원과 놀이 공간으로 꾸며 방문객의 발걸음을 붙잡았고,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튤립과 공간 디자인을 통해 젊고 감각적인 공항으로 공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홍콩 첵랍콕공항 역시 쇼핑과 식도락으로 설명되는 홍콩의 대표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 럭셔리 쇼핑 공간과 맛집이 즐비한 홍콩다운 대표 공항으로 탈바꿈했다. 이들 공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선택'과 '집중'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서비스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공항을 브랜딩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의 공항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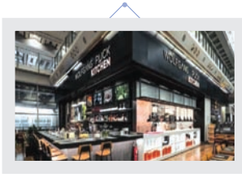
싱가포르 창이공항

싱가포르의 대표 이미지인 '정원'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이미지와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 이미지를 결합해 공항 전체가 정원이자 놀이공원이라는 싱가포르 창이공항만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 암스테르담의 상징인 'I amsterdam', 네덜란드의 앞선 건축과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공간 디자인'을 통해 젊고 감각적인 공항이라는 스키폴공항만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홍콩 첵랍콕공항

홍콩의 대표 이미지인 '쇼핑'과 '식도락'을 활용하여 럭셔리 쇼핑 공간을 마련하고, 홍콩 유명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F&B 공간을 통해 홍콩의 맛과 멋을 잘 살린 공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는 3단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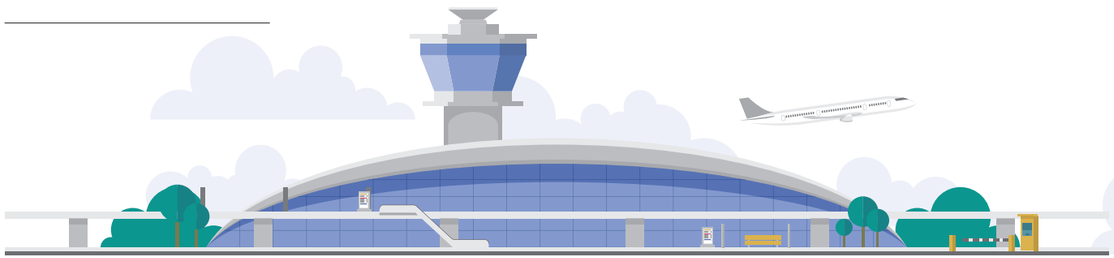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문화예술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전통문화, K-팝, K-드라마, 최근 떠오르는 K-방역까지 수많은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천국제공항은 문화예술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문화예술공항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는 그간 각 부서별로 진행해오던 문화예술 사업에 구심점을 만들어 기획과 실천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셈이다. 문화예술공항팀은 먼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여객에게 주목했다. 내외국인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와 연계한 브랜딩을 초석으로 하되, 두 그룹의 지향점이 다름을 명백히 인식하고 내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만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문화경제권 활성화와 문화예술공항 구현은 서로 ‘경제권 조성을 위한 기반’과 ‘문화예술공항 구현의 동력’이 되고, 이는 결국 “항공수요 창출”을 불러온다.

문화예술공항의 중·장기 로드맵은 총 세 단계로 기획되었다. 1단계에서는 문화예술공항의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공항문화경제권을 구축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지역경제권과 연계해 ‘문화예술의 섬 ICN’을 완성하는 것이다. 단계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자. ‘문화예술공항 중·장기 전략’ 안에는 문화예술공항 BI 정립,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랜드마크 조형물 등 공항을 중심으로 단기 사업 시행이 포함되고, ‘공항문화경제권 랜드마크 개발’에는 미술관, K-콘텐츠 테마파크 등 공항경제권 내 문화예술 랜드마크 개발,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이 포함된다. ‘문화예술의 섬’ 단계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바닷길을 조성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문화예술 도시재생 프로젝트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공항 중·장기 로드맵



기본 방향

1단계 (~2022년)
- **미 션** 문화예술공항 기반 마련
- **주요 과업** 문화예술공항 중·장기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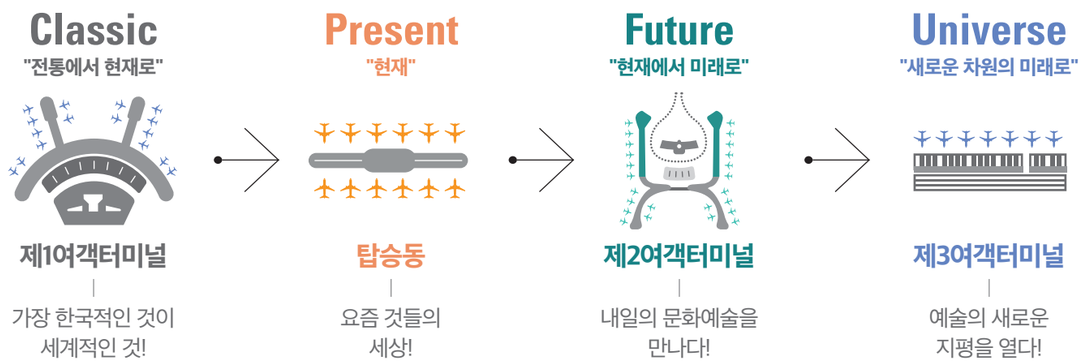
2단계 (~2025년)
- **미 션** 공항문화경제권 구축
- **주요 과업** 공항문화경제권 랜드마크 개발

3단계 (~2030년)
- **미 션** 지역 경제권 연계
- **주요 과업** 문화예술의 섬 조성

비전

문화예술의 섬
ICN
(Island of Culture & Nature)

터미널별 브랜딩 콘셉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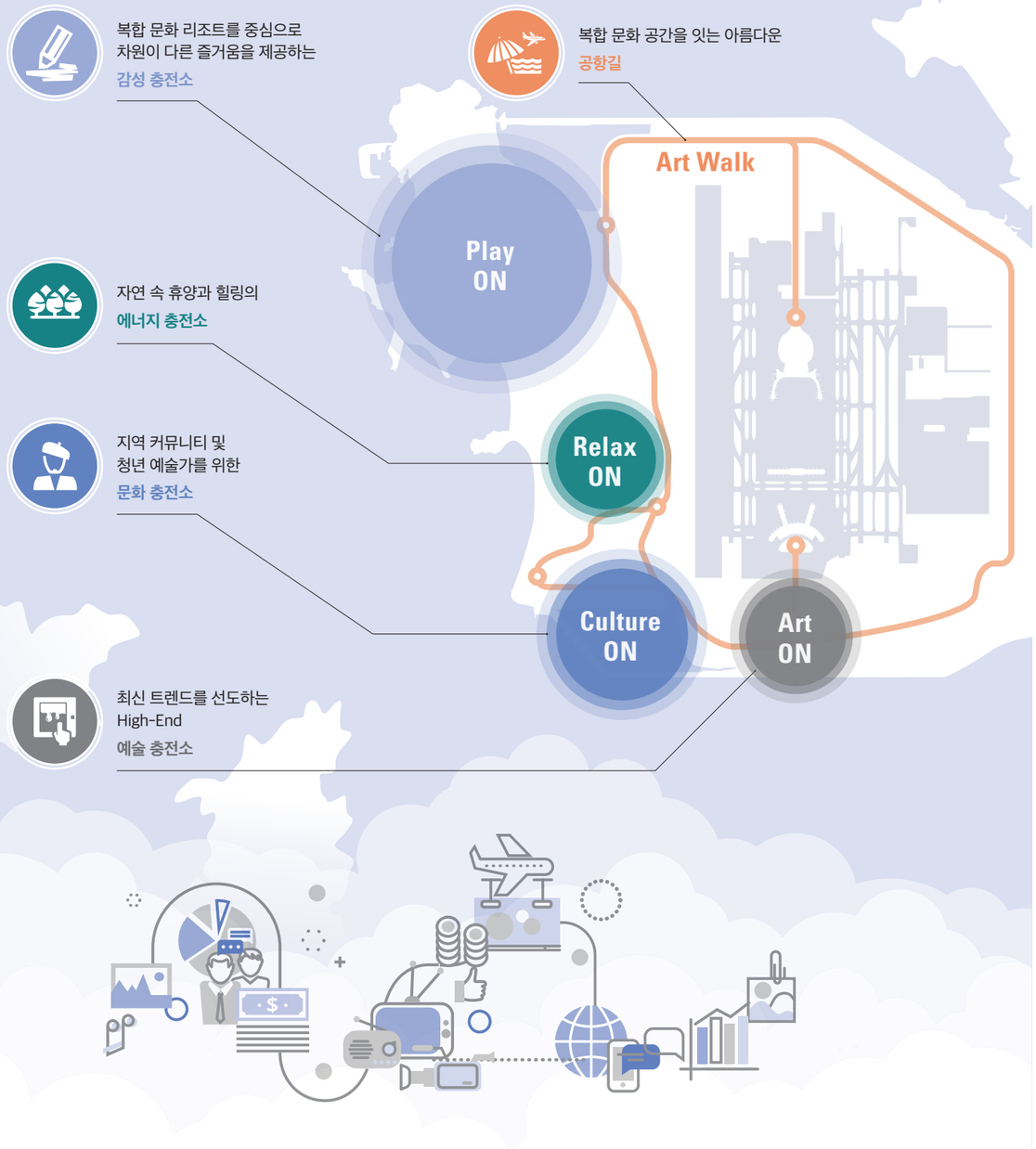
문화예술공항의 마스터플랜은 자기부상철도, 버스, 자율주행 등 접근 교통을 중심으로 완성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네 가지 존(zone)으로 나누었으며, 각 구역별로 마련한 차별화된 즐길 거리는 향후 여객뿐 아니라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거대한 문화 벨트 역할을 할 것이다.

각 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 주차장 지역의 ‘Art ON’ 존은 건축물의 조형미와 하이엔드 아트가 중심이 되는 공간, 을왕산 부지의 ‘Play ON’ 존은 카지노, 놀이공원, 영상 테마파크, 복합 실내 스튜디오 등이 들어서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오성산 부근의 ‘Relax ON’ 존은 한옥 호텔, 미술관 등이 들어서 휴양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 유수지인 용유역 주변의 ‘Culture ON’ 존은 분수 아트, 맛집 거리,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 예술 무대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Art Walk’ 존은 남측 및 북측 유수지 인근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와 방문객 앵커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 디자인도 문화예술에 걸맞은 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제1여객터미널은 한국의 고전미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동시대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탑승동은 한국의 젊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가장 최근에 지은 제2여객터미널은 세계적인 파인아트(fine art)와 연계해 명품 브랜드들과 예술적 접목을 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진입로와 톨게이트 역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사이니지 교체, 아트 조형물 설치, 기존 조형물 이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내외국인 모두 문화예술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강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문화예술벨트 개발 Zone

자기부상철도, 버스, 자율주행 등의 접근 교통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문화예술벨트를 구축하고, Zone별 차별화된 즐길 거리 개발로 여객뿐 아니라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합니다.



문화의 힘으로 앞서 나가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정치와 경제의 힘을 이야기할 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어록은 21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첨단 기술과 IT 발전, 전통문화를 접목함으로써 이룩한 성과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후발 주자들이 숨 가쁘게 쫓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공항만의 차별성은 성공적 미래를 담보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별성은 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에서 비롯됨을 이제는 모든 이가 안다.

기존에 행해온 문화예술이 여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전면에 문화예술을 내세움으로써 높은 문화예술의 힘을 가진 이 땅에서 내외국인 여객이 받는 첫 번째 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영종도 일대 전체가 거대한 문화예술 공화국이 될 때 얻게 될 파급 효과는 공항경제권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을 공항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선도하고 여객과의 정서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변화를 유도하게 될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는 이때. 국적, 연령, 성별을 모두 초월한 키워드로 '문화예술'을 선택한 인천공항의 꿈이 이제 훨훨 날갯짓을 시작했다.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인천국제공항, 문화예술공항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홍보실 김영식 실장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인천국제공항 홍보실이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에 묵직한 일을 하나 더 얹었다. 문화예술공항팀을 새롭게 만들어 홍보실 안에 둠으로써 인천국제공항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천명한 것이다. 어디와도 같지 않은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공항을 만들겠다는 인천국제공항의 꿈을 만나러 가보았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백하다. 영종도와 용유도, 공항 주변 전체를 꼭 와보고 싶은 곳, 예술과 힐링, 휴식을 함께 즐기고 내외국인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SCENE #2 INTERVIEW 2

한층 업그레이드된 홍보실을 기대해주십시오

현대사회에서 '홍보'란 뛰어난 제품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범과 역사를 함께해온 홍보실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널리 알리는 부서'라는 초석 위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쌓아 올림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세상에 알려왔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변신을 거듭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해왔다.

2020년이 막 시작될 무렵, 인천국제공항 홍보실은 꽤 들썩거렸다. 김영식 실장과 문화예술공항팀이 나란히 홍보실에 새롭게 둥지를 틂으로써 홍보실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창립 멤버로 재무처장, 항공보안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홍보실에 부임한 김영식 실장은 입성 직후 4개 팀 총 26명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자신이 최고 전문가라는 마인드를 갖고 일할 것" 그리고 "각 팀이 보유한 기능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일하자"라는 것. 홍보실 직원들 전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에 충분한 시발점이었다.

총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팀의 역할은 명확히 나뉘어 있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면서 공식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각종 간행물 발간, 사진 및 영상 제작, 대외홍보행사 개최 등을 담당하는 '홍보기획팀' 언론사 취재 지원, 언론 홍보전략 수립,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언론홍보팀', VIP 의전 계획 수립, 국제 행사 지원, 터미널1·2 귀빈실 및 CIP 라운지 운영 등을 맡고 있는 '의전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기준을 마련해주고 전체 예산 편성과 사업 기획 총괄 관리 업무를 도맡은 '문화예술공항팀'이다.

문화예술로 만나는 새로운 공항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팀이지만 신생 문화예술공항팀의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느 팀이 홍보실의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문화예술공항팀은 조금 다른 성격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공항은 주로 여객 및 화물 처리 등 공항의 기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4년부터 문화예술공항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 업무로 차별화를 지향해왔어요. 문제는 총괄 부서가 없이 본부별, 부서별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공항팀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스토리 라인과 기준을 탄탄히 만들어 사업을 실행하고자 생긴 팀입니다."

김영식 실장은 주변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이나 여객 처리는 결국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패러다임을 문화예술공항으로 바꿔 차별화된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는 공항경제권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백하다.

영종도와 용유도, 공항 주변 전체를 꼭 와보고 싶은 곳, 예술과 힐링, 휴식을 함께 즐기고 내외국인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홍보실 전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아껴준 덕분에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왔는데 앞으로도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항으로 새롭게 변신할 인천국제공항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을 문화예술로 브랜딩하다

문화예술공항팀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문화예술공항팀은 그 이름에서 곧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올 초 새롭게 탄생한 이 팀은 인천국제공항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문화예술공항으로 변모시키고자 모인 인재들의 집합소다. 그 어느 공항과도 닮지 않은 차별화된 공항으로 세상을 이끌고자 하는 문화예술공항팀. 그 넘치는 열정과 활력을 만났다.

인천국제공항을 문화예술로 브랜딩하다

문화예술은 21세기에 이르러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필수라는 사실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선구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이는 문화예술공항팀 팀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예술공항팀의 신설을 공표하며 팀원 모집 공고를 냈을 때 문화예술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들이 팀원이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은 이유다.

김윤섭 팀장을 포함한 총 6명의 팀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다. 인천국제공항을 문화예술로 브랜딩해 여타 공항과 차별화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글로벌 No.1 공항으로서 경제·문화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인 직원들의 하루하루는 지금까지 숨 가쁘게 돌아갔다. 각자의 포지셔닝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 달간 진행한 회의만 무려 50차례. 그동안 만난 공공기관과 대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 글로벌 명품 회사 등의 수는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우리는 공항이 출발지가 아니라 도착지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목적지가 되려면 당연히 볼 게 많아야 해요. 그것도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다른 공항과 차별화가 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전 세계 사람이 옵니다. 독특한 개성으로 이름을 얻고 있는 세계 공항을 연구했는데,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으로서 콘텐츠를 활용해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문화예술공항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온화한 덕장의 면모를 풍기는 김윤섭 팀장의 설명이다. 문화예술공항을 지향하는 신생 팀으로서 팀장을 비롯해 직원들의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김 팀장은 "문화예술을 즐기기는 쉬우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문화예술을 담당자가 되어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노방의 풀들이 보기는 좋으나 내가 가서 막상 뜯으려면 힘든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말했고, 김지숙 과장은 "기존에 없던 조직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고 저항을 거스르면서 강을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다"라고 토로했다.

6인 6색의 전력투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공항팀의 에너지와 활력은 가히 최고다. 잠시도 침묵할 수 없는 치열한 브레인스토밍, 저마다 불붙은 듯 쏟아내는 아이디어, 내·외부 고객들과의 열정적 소통과 협업까지 신생팀으로서 견고한 틀을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끝없이 내달린 것이다.

인터뷰 내내 초롱초롱 눈을 빛낸 팀원들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자.

김윤섭 팀장

최선규 차장은 디자인 담당으로서 문화예술 중·장기 사업을 진행하며 스토리텔링에 맞춰 디자인 콘셉트를 잡고 그에 걸맞게 시설이 개선되고 신설되는지 검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현민 과장은 브랜딩 담당자로서 인천국제공항을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브랜딩할지, 브랜드 정체성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지숙 과장은 문화예술공항의 콘셉트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뒤 종합적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연혜인 사원은 공항의 디자인, 문화예술 자문 및 심의를 해주는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최선규 차장이 맡은 디자인 종합자문 및 검토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박서진 사원은 타 부서에서 시행 중인 문화예술 사업을 파악하고 정리해 문화예술공항팀이 문화예술 사업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관리한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것 또한 박 사원의 몫이다.

"우리는 기획 부서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공항뿐 아니라 공항 외부에

최선규 차장

도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누구와 컬래버레이션할지 현업 부서와 협의해 사업을 수립합니다. 실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요. 예산 관리를 저희 팀이 맡은 건 해당 부서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지, 합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숙 과장과 최선규 차장이 박서진 사원의 말에 설명을 보탰다.

거대한 문화 벨트 구축으로 꿈꾸는
초격차 문화예술공항

지난 5개월간 이들이 내디딘 발자국은 매우 유의미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컬처 포트'라는 단어를 쓴 건 2006년도부터지만 당시에는 문화예술공항 콘셉트를 총괄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확실히 달랐기 때문이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공항팀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수십 차례의 회의 때마다 일일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모두 만난 시간은 지금 문화예술공항팀이 움직이는 밑거름이 됐다.

이런 과정에서 맹활약한 건 최선규 차장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디자이너로 세계 공항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온 그의 조언과 넓은 시야는 팀 전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하지만 최 차장은 거꾸로 조직원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놓았다.

"저는 해외에서 문화예술 디자인 분야의 일을 워낙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막혀 있거나 고루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업무 면에서 타 공항과 비교해 정말 많이 깨어 있습니다. 해외 유수 공항과 견주어도 인천국제공항처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공항이 많지 않아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문화예술공항으로서의 마스터 플랜은 모두를 하나의 목표 아래 두기에 충분했다. 터미널 접근 교통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뉜 Play ON, Relax ON, Culture ON, Art ON이라는 존(zone)과 Art Walk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문화예술벨트를 구축해 그 안에서 여객은 물론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팀원들이 일하면서 가장 어려워한 부분은 직속 상관인 김윤섭 팀장을 설득하는 일이다. 팀 내에서 자칭 타칭 '일반인 담당'인 그는 자칫 전문가의 시선에 갇히기 쉬운 틀을 깨고 공항의 주인이 될 고객들의 존재를 수시로 각성시키며 행여 팀원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키를 움직이고 있다.

문화예술공항팀에 최종 꿈을 물었다.

인천국제공항이 교통수단이 아닌, 고객은 물론 직원들까지 포함해 선도적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 공항을 넘어 한국의 이미지를 문화예술로 브랜딩할 수 있는 곳, 떠나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곳,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브랜드와 일치시키는 것, 인천국제공항만의 색깔을 입히는 것…. 팀원 모두가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결국 종착지는 하나다. 이 모든 것을 공항문화경제권과 연계해 문화예술공항이라는 테마 안에서 글로벌 항공업계의 초격차 공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이들이 벌이는 판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월 국립현대미술관과

연혜인 사원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팝업 미술관도 오픈할 것이다. 하반기 '아름다운 공항길' 구축 사업을 비롯해 한류 콘텐츠 관련 사업체와의 협업, 명품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작업도 가시화되고 있으니 수년 안에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1년 뒤 지금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와 가슴에 그런 생각을 담고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길 바랍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정현민 과장

박서진 사원

지금은 힘들지만 1년 뒤 지금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와 가슴에 그런 생각을 담고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길 바랍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김지숙 과장

SCENE #4 INTERVIEW 4

인천국제공항의, 인천국제공항에 의한, 인천국제공항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디자인혁신자문위원회 전기순 위원장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인천국제공항이 지향하는 문화예술공항으로 가는 출발 지점에는 디자인혁신자문위원회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디자인 전반을 종합적 시각에서 자문하고 디자인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든 이 기구는 문화예술공항을 표방한 인천국제공항의 꿈을 앞당기는 곳. 디자인혁신자문위원회 전기순 위원장(강원대 멀티디자인학과 교수)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디지털 노마드를 사로잡아라

전기순 위원장은 바쁜 인물이다.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이 기업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 이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다. 바로 공항이 주는 상징성, 세계를 대표할 우리나라의 첫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설렘'과 관련한 글을 쓰고 있던 즈음,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설렘'이라는 단어에 감동을 받았다는 전기순 위원장은 떠나는 공간이자 도착하는 공간인 공항을 두고 들뢰즈의 리좀(resume)을 언급했다.

"인간 마음의 움직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각자의 세계를 발굴하고 한 장소에서 머무르기를 싫어하며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것, 그 새로운 세계 자체가 생명체로 생성되면 또 날아가버리는 생태계…. 인천국제공항은 유저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 설렘을 놓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한 사람을 한 번만 감동시키면 모든 게 끝나요. 나이가 적든 많든 국적이 어디든 언제든지 공항에 찾아오는 겁니다."

전기순 위원장은 21세기 문화예술 융·복합의 선두 주자가 인천국제공항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 Beyond(Post Corona) 시대가 우리 공항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천년 뒤의 번영을 예상하라

불안과 변화가 기저에 깔린 코로나 시대에 클린 공항은 명백한 지향점이다. 전 위원장의 비전은 바로 이 클린 공항에 문화예술을 융합하고 그 안에서 리좀 같은 액탄트(actant)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이다.

전기순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째, 전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토털이라는 개념 아래 한국적 조형성과 점·선·면 개념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첨단성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를 통해 이미 국제적 신뢰성을 획득하고 인지도를 높인 만큼 이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최첨단 신소재를 발굴하는 게 급선무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이는 잘 지은 정자 하나로 보여주는 정통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말합니다."

전 교수는 이것은 결국 앞서 말한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리좀으로 다시 귀결된다면서 고객중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 시대는 공항 자체가 인터내셔널 시장'이라는 전기순 교수의 말 속에는 변화에 가장 민감한 구성원들이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공간이 브랜딩되는 순간, 인천국제공항이 꾸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다.

천년 뒤까지 생각하는 공항, 세계적이고 동시대적인 가치와 문화예술 트렌드를 적용한 인천국제공항의 원대한 목표, 창의 융합에 기반한 세계적 클린 공항의 실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강력한 방향키로 추진력을 얻고 있다.

Endless Dis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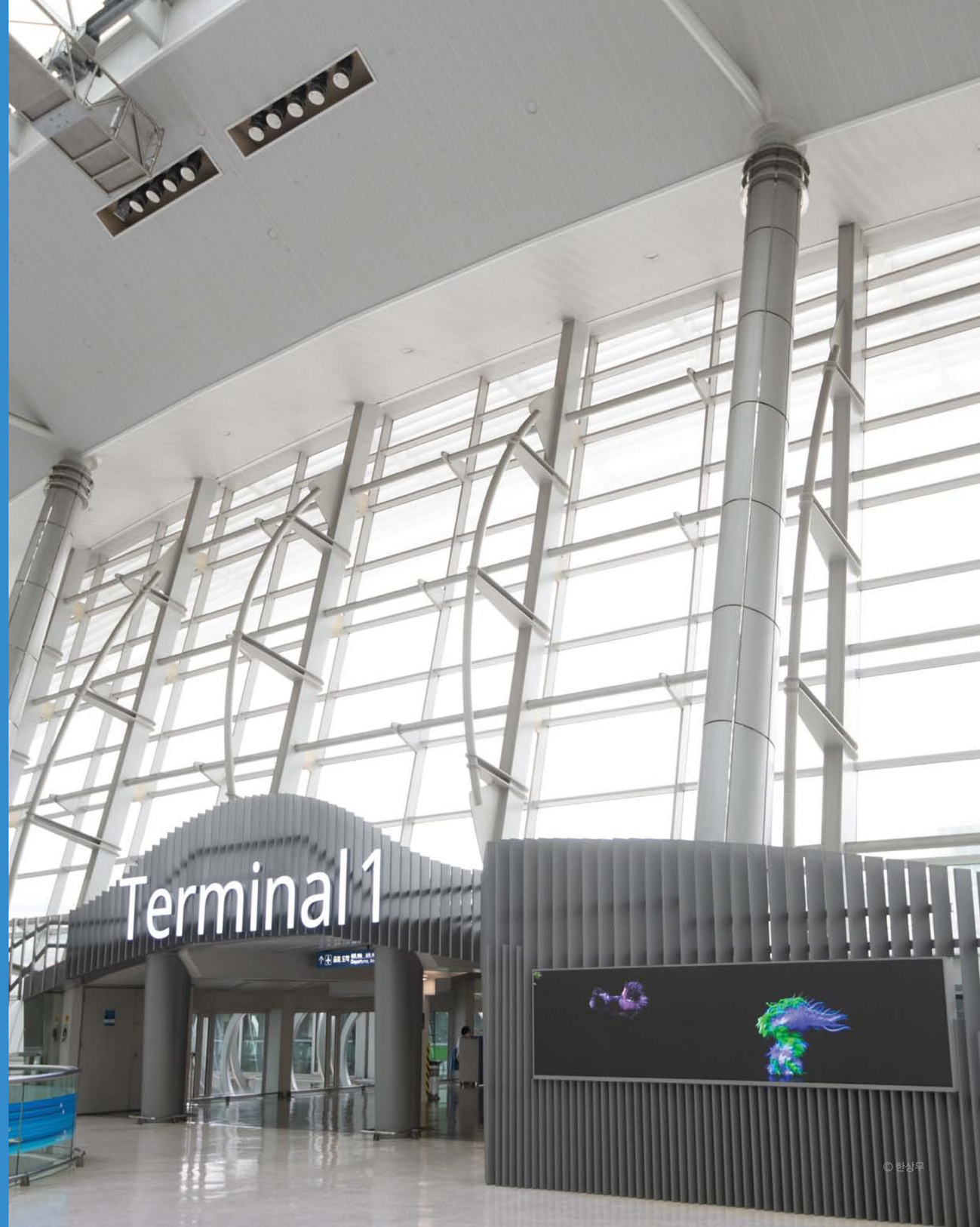
24
피플 인사이드
여객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상상력을 품은 이들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팀

30
지금, 여기, 승봉도·사승봉도
잠시, 당신과 나태하게

36
공간 인사이드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리딩 공항에 이르기까지
인천국제공항 역사관

40
아트 인사이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그대에게
생텍쥐페리 소설 <야간비행>

44
City Walk
타히티, 낙원의 또 다른 이름



© 한상무

여객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상상력을 품은 이들,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큐레이터가 되다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팀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세계에서 서비스도, 시스템도 가장 빠르다고 정평이 난 인천국제공항이지만, 잠시 여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순간이 있다.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무심한 눈길을 사로잡는 예술 작품 하나에 입출국을 위해 스쳐 지나가는 공항은 금세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그 순간 설렘과 기대감 뒤에 숨어 있던 낯섦과 두려움도 스르르 녹아내린다. 여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큐레이터로 나선 이들 덕분이다.

소프트 파워로 여객의 마음을 사로잡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컸다. 공항은 여행을 앞둔 고객에게 새로운 장소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이와 더불어 편리함과 편안함을 선물해야 하는 곳이기에 여객서비스팀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둔다. 생각지 못한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공항에서의 시간을 가슴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제1여객터미널은 물론 제2여객터미널에서도 소프트 파워를 느낄 수 있다. 한국문화거리와 한국전통문화센터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유물 전시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게다가 곳곳에 위치한 예술 작품을 통해 이곳을 오가는 이들에게 쉼표와 느낌표를 안겨준다.

터미널 운영은 여객이 낯선 공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객이 당황스러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찾는 안내 데스크도 관리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도 소속되어 있죠. 교통 약자에게는 전동차를 안내하고, 면세점 쇼핑도 도와드립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객서비스팀이 검역 길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혹은 중국발 여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고민했습니다. 대기 줄 바닥에 1m 간격으로 스티커를 붙여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여객서비스팀에서 일한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여객들이 공항에서 혜매지 않도록 앞으로도 충실히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길잡이, 세계 검역의 길잡이

신수정 차장 + 신지은 차장 + 이아침 사원 + 조종호 팀장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항을 위한 큰 그림

조경희 사원 + 최명호 과장 + 박가영 대리 + 김재원 과장

컬처 포트와 아트 포트를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365일 매일 공연을 열고, 작품도 전시합니다. 특히 여객서비스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만나는 첫 관광지이자 마지막 관광지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마음으로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재단,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진품 문화재를 전시하고, 올해 7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에 무형문화재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왕가의 산책, 수문장 교대식 등의 공연도 계속 열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청년 예술가와 손잡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시 작품은 예술성은 물론 공항 이미지에 부합하면서 앞으로 유지·보수까지 고려한 것들입니다. 저희 공항을 방문하시는 여객 여러분이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단순히 입출국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보고 느끼는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컬처 포트, 아트 포트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선물하는 뜻밖의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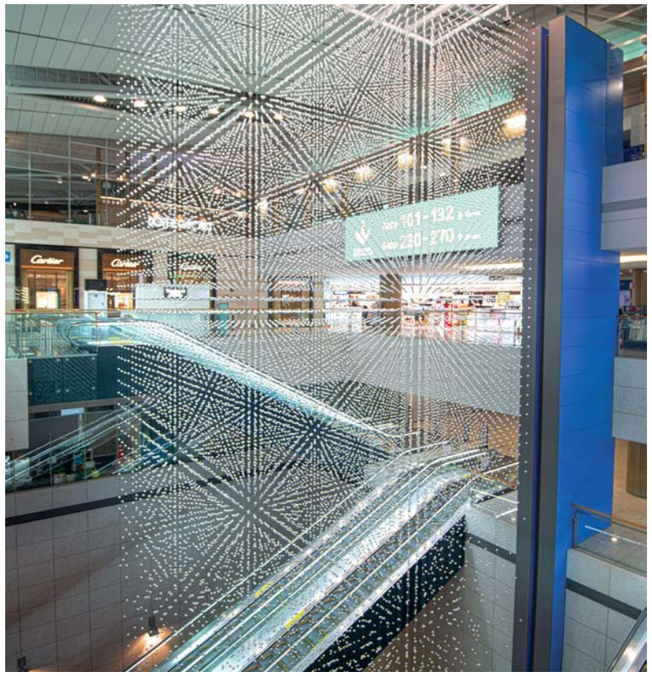
김태일 사원 + 손정경 과장 + 정진석 사원 + 김동휘 사원

하루 평균 20만 명이 찾는 인천국제공항은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만큼 시설 파손이나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원을 줄여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객서비스팀에서는 기존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항을 지향하며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전용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패스트 트랙을 구축했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히어링루프와 화상 안내 모니터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수하물이 많은 고객을 위해서는 수하물 카트를 운영하고, 유아를 동반한 가족 여객을 위해서는 패밀리 센터를 운영해 아이들이 공항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 여객들이 이러한 편의 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응대를 보완하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도 여객서비스팀의 몫입니다. 여객 중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의료 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객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여객이 감동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늘 준비하는 공항이 되겠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는 예술 작품

집 속의 집(서도호)
제1교통센터 동측에는 집 안에 집이 들어 있는 형태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집에 돌아오거나 집을 떠나는 모든 여객이 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으로, 방문객에게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내국인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집합 190707(박선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 지역 3층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는 웅장하고 우아한 이 작품에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성을 지닌 공항의 특별함이 녹아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과 모양이 달라지는 만큼 오래,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작품이다.

(오른쪽)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 미디어 타워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가로 10m, 폭 3.5m, 높이 27m 규모의 초대형 미디어타워로 로만 드 기우리의 '뷰티풀 월드(Beautiful World)' 등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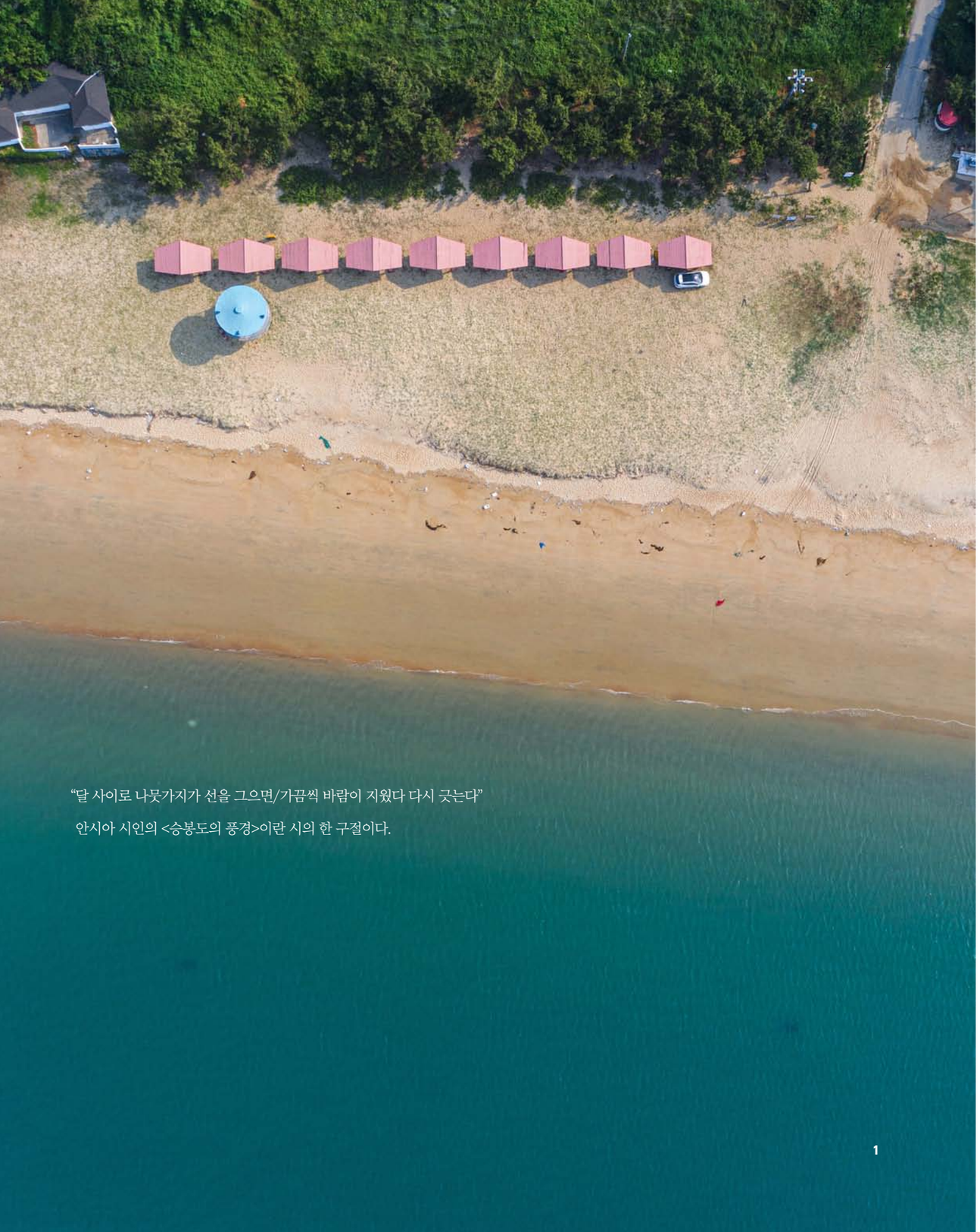
(왼쪽) 미디어 아트 콘코스
탑승동 3층 중앙부를 향해 고개를 들면 거대한 미디어 월이 눈에 띈다. 이 미디어 월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디어 아트를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박제성 작가의 'Universe', Universal Everything의 'We All Dream of Flying'을 상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잠시,
당신과 나태하게

인천 승봉도·사승봉도

글 **이시목 여행작가** 사진 **한상무**

길마다 바다가 잇닿은 승봉도는 나른히 철썩대며 걷기 좋아서,
무인도인 사승봉도는 늘어지게 쉬기 좋아서,
당신과 잠시 나태하고 싶을 때 찾아 쉬기 좋다.
애써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 '잠시'를 꿈꾼다면
주저 말고 가보시라.



"달 사이로 나뭇가지가 선을 그으면/가끔씩 바람이 지웠다 다시 긋는다"
안시아 시인의 <승봉도의 풍경>이란 시의 한 구절이다.

1

1. 승봉도에서 유일하게 고운 모래가 펼쳐져 있는 이일레해수욕장. 모래사장 뒤로는 울창한 해송이 자리하고 있다.
2. 승봉도의 명물 남대문바위. 썰물 때면 바위 사이를 걸어 지나갈 수 있다.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해 코끼리바위라고도 부른다.

2

언젠가 그녀가 물었다. "너의 여행은 왜 그렇게 바쁘니?"라고. 질문의 의도는 '조금 느긋하게 여행하자'는 귀여운 투정이자 요청이었다. 생각해 보니, 바쁠 이유도 없는 길을 참 바삐 걷던 때였다. 마치 빨리 해치워야 할 업무 다루듯.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일하듯 여행한다. 얼른 구경하고 얼른 밥 먹고 잠깐 쉬고 또 구경하고. 여행지의 규모가 크거나 볼거리가 많을 땐 더했다.

올여름엔 그런 여행 말고 '나태한' 여행 한번 해보자. 걸을 때도 숨차지 않을 속도로, 구경할 때도 천천히 빈둥거리며, 잘 때도 늘어지게 푹. 그렇지만 볼거리는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여행. 승봉도와 사승봉도는 그런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일단 섬이 작다. 승봉도는 마을 하나와 해수욕장 한 곳, 산 하나가 전부여서 느린 걸음으로도 3~4시간이면 한 바퀴 휘돌 수 있다. 덕분에 쉴 틈이 많다.

승봉도엔 즐길 거리 또한 넉넉하다. 10여 km에 불과한 해안 곳곳이 파도가 빚어낸 특이한 바위와 기암절벽이다. 이 기암 가득한 해안을 따라 파도 철썩대는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너울너울 걸을 수 있다. 나태하게 걸을수록, 빈둥대며 구경할수록 좋을 테다.

승봉도에서는 부속 섬인 사승봉도를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 있다. 섬지기라 부르는 관리인 한 명이 살고 있지만, 무인도라 해도 무방할 곳이라 어디보다 한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섬에 누워 파도 소리를 벗 삼아 늘어지게 푹 자보는 것도 좋겠다.

나른히 철썩대며 걷기 좋은 섬

승봉도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이일레해수욕장이다. 선착장에서 섬 남쪽으로 1.2km 남짓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일레해수욕장은 탄탄해 질척이지 않는 모래밭을 품어 하루 종일 맑은 바다가 찰랑대는 곳이다. 밤이면 아이들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나가 해변을 산책하는 재미도 있는 곳. 때때로 이곳에서는 낙지며 고둥, 소라, 골뱅이 등이 잡힌다.

물놀이가 지칠 때는 둘레길 산책에도 나서보자. 해수욕장 뒤편 당산과 해안길을 잇는 승봉도 둘레길은 숲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당산을 가로질러 해안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울창한 숲 그늘 속이고, 산책로 끝에서 만나는 부두치해변부터는 로맨틱한 바닷길이다. 파도가 많이 부딪친다 해서 '부디치'라고도 부르는 부두치해변은 모래와 자갈, 조개껍데기가 섞여 이룬 아름다운 해변. 썰물 때면 해변 앞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목섬이 모래톱으로 연결돼 걸어 들어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목섬 주변 김 양식장에는 주민들의 삶도 질펀하게 녹아 있다. 바다에 몸을 반쯤 담근 주민들이 꽃처럼 반짝 빛나는 자리이니 오래 눈길 둬도 좋겠다.

목섬에서 북동쪽 소리개산으로 가면 정자 '신황정'에 설 수 있다. 바다 전망이 좋아 어디보다 오래 그 그늘 속에 앉아 쉬어 가기 좋다. 신황정에서 다시 바다 쪽으로 들면 삼형제바위해변에 이른다. 촛대바위에서 섬의 서쪽 방향으로 북쪽 해안을 타고 1.5km 정도를 걸으면 승봉도의 또 다른 명물인 남대문바위가 보인다. 마치 사람이 만들어놓은 문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남대문바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코끼리 모양에 더 가깝다.

남대문바위 옆에 있는 부채바위도 놓치면 아까울 볼거리다. 햇빛을 받으면 황금색으로 변하는 부채바위는 다른 기암들과 달리 바위 자체 모양보다 바위 위에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에서 그 이름이 붙은 경우다. 바닷가 절벽에 바짝 붙어 조성된 목재 덱에 서서 양팔을 부채처럼 활짝 펼치면 부채바위 저편 바다를 훌쩍 건너온 바람이 몸 안으로 담뿍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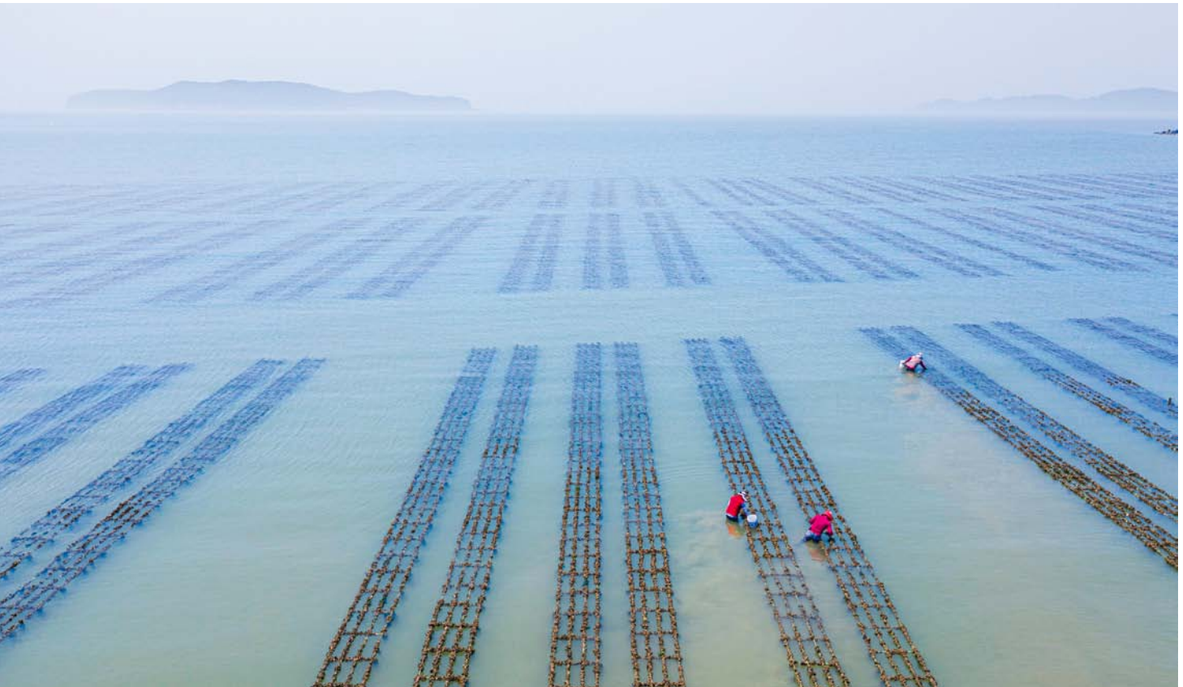
파도가 모래에 길을 내는 섬

"달 사이로 나뭇가지가 선을 그으면 / 가끔씩 바람이 지웠다 다시 긋는다" 안시아 시인의 '승봉도의 풍경'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사승봉도에서는 이 시에서처럼 모래밭 위로 바닷게가 선을 그으면 가끔씩 파도가 지웠다 다시 긋는다. 철썩 차르르, 철썩 차르르…. 그렇게 파도가 모래밭의 선들을 지우고 긋는 사이, 바다는 저만치 물러나 앉고, 모래밭은 이만치 넓어져 아득해진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승봉도의 '사' 자가 '모래 사(沙)'인 이유는.

실제로 사승봉도에서 모래는 섬의 시작이자 끝이다. 밟는 길 모두가 모래밭이니, 모래밭이 곧 길이고 모래밭이 곧 마당이다. 파도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모래밭은 걷기에도 참 좋다. 걸을 때는 파도와 모래알의 감촉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맨발이 제격. 발가락 사이를 비집고 드는 모래알의 감촉이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다.

한여름엔 모래찜질과 캠핑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즐길 거리다. 특히 캠핑은 해볼 만하다. 2년 전 여름, 사승봉도에서 승봉도로 돌아가는 길에서 함께 배를 탔던 대학생들이 말했다. "모기가 참새만 하던데요? 그래도 어제처럼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그토록 선명한 파도 소리도 처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도 오랜만이었고…." 올여름엔 장딴지를 벅벅 긁으면서도 내내 기분 좋게 헤죽거리던 그들처럼 이 섬을 즐겨보면 어떨지. 이왕이면 조금 더 나태하게, 조금 더 천천히.

바다에 몸을 반쯤 담근 주민들이 활짝 핀 꽃처럼 보이는 목섬 주변 김 양식장.



승봉도·사승봉도의 즐길 거리

승봉도·사승봉도 가는 길

인천항 연안여객선터미널(고려고속훼리, 케이에스해운 여객선, www.kefship.com, 1577-2891 / 대부해운: 여객선, www.daebuhw.com, 032-887-6669)이나 대부도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대부해운: 차도선, www.daebuhw.com, 032-886-7813~4)에서 승봉도행 배 승선 → 승봉도 도착 / 승봉도에서 낚싯배(비수기에는 부정기 운항, 성수기에는 수시 운항)로 10여 분 이동 → 사승봉도 도착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승봉도 둘레길 트레킹 승봉도해변은 진기한 기암괴석이 줄곧 이어져 걷기 좋다. 보건진료소 앞 삼거리에서 이일레해수욕장~당산 산림욕장(정상)~목섬~신황정(정자)~촛대바위~삼형제바위~남대문바위~부채바위 등을 거쳐 출발지로 되돌아올 수 있다. 섬을 한 바퀴 걸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시간.

승봉 산림욕장 이일레해수욕장 뒤편엔 승봉 산림욕장이 있다. 산림욕장 내 산책로의 길이는 약 1.2km(도보 20~30분). 울창한 해송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한여름에도 걷기 좋다.

목섬 부두치해변 앞에 있는 목섬은 삼각형 모양의 조그마한 섬으로, 하루 두 번씩 썰물 때면 모래톱으로 연결돼 뭍이 된다. 섬 주위 해안가로는 운치 있는 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사승봉도 캠핑 사승봉도에서는 캠핑이 묘미다. 모래밭 뒤에 있는 수풀 지대나 해송 숲이 캠핑 포인트. 개인 소유 섬이라 입장료와 텐트 설치비를 받으며 섬 관리자에게 미리 전화하면 낚싯배 승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리딩 공항에 이르기까지 공항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다

인천국제공항 역사관

글 남지연

혹여나 촉박할까 여유롭게 도착한 공항. 예상보다 더 일찍 도착한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객이라면 이곳에 꼭 한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인천국제공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역사관은 인천국제공항이 지나온 역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공항을 방문한 여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최고를 향한 도전

인천국제공항 개항 19주년을 기념하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5층 홍보전망대에 조성된 '인천국제공항 역사관'(이하 역사관)은 인천국제공항이 지나온 발자취와 그간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역사관으로 가기 위해 홍보전망대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넘어갈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전면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형상화한 권민호 신진 작가의 영상 작품이 재생되고 있으며, 양옆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성장 과정과 단계별 발전사를 살펴볼 수 있다. 어두운 공간 속 빛나는 천장의 LED 패드에는 이륙하는 비행기를 형상화한 조명이 반짝이는데, 이 조명이 반사되며 바닥에 비치는 모양은 마치 활주로를 연상시키며 우리를 황홀한 공항의 세계로 이끈다.

글로벌 STANDARD ICN

역사관에 들어서면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된다.

'인천국제공항 20년'과 '세계를 잇는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테마존에서는 연도별로 인천국제공항의 역사를 조명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 동북아를 아우르는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보여준다. 1992년 시작된 인천국제공항의 날갯짓부터 2001년 개항 이후 5년 만에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영광스러운 기록까지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성과를 단계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열정과 도전의 순간들

지금의 인천국제공항이 있기까지 노력한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는 이 공간은, '성공을 일구어낸 사람들', '열정과 도전의 기록', '성공적인 개항, 그 감동의 기억' 세 가지 테마 존으로 나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기관과 인물 등의 이름이 한쪽 벽면에 아로새겨져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상한 주요 상패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록을 담은 기사,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특별존으로 약 8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성공적으로 이끈 강동석 초대사장의 기념 공간도 마련돼 있다. 한편,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이목을 끄는 '순간포착 ICN People'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정을 쏟고 있는 약 7만 명의 직원이 인천국제공항 곳곳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내일을 향한 비상, JOY! ICN

역사관에 입장하자마자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뻥 뚫린 창밖으로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계류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는 수많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드나드는 모습이나, 후진하기 어려운 여객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토잉카들, 거기에 높다랗게 자리한 관제탑을 가까이에서 보는 재미까지 즐거움이 쏠쏠하다.

항공기를 단면으로 자른 듯한 모습의 조형물을 통해 비행기 내부 모습을 관찰하고, 마련된 조종석에 앉아 잠시나마 파일럿이 된 기분을 느껴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과 인천국제공항 공항경제권 비전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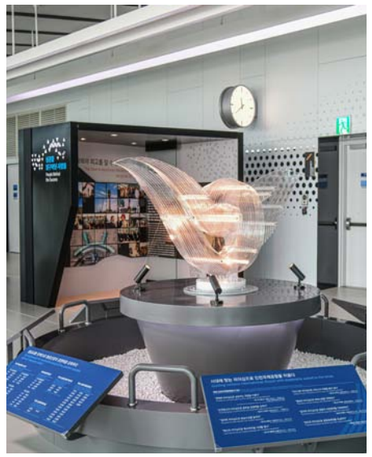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곳곳을 담은 15개의 사진에 내 모습을 합성할 수 있는 타임슬라이스 포토존,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 처리 시스템을 생생한 VR로 체험해볼 수 있는 VR 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역사관을 방문한 여객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선사한다.

인천국제공항 역사관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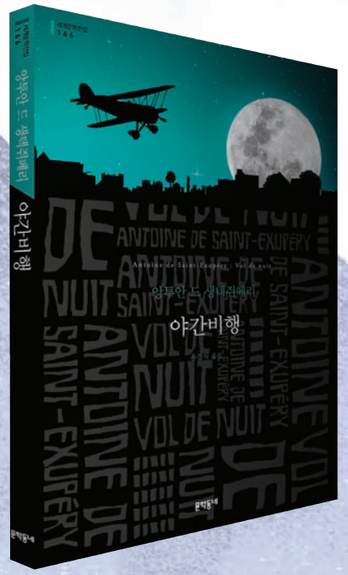
제2여객터미널 일반구역 5층 인천국제공항 홍보전망대 내
오전 7시~오후 8시(연중무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휴관 안내

인천국제공항 역사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중입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역사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지나온 발자취와
그간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그대에게

생텍쥐페리 소설 <야간 비행>

글 **조훈 항공 칼럼니스트**

생텍쥐페리는 글쓰기와 비행이라는 두 가지 이상을 좇으며 살았다. <야간 비행(Vol de Nuit)>(1931)은 그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운송 산업의 큰 축이 됐던 항공우편 수송업계에서 조종사로 일하면서 겪은 경험과 번뇌를 투영해 쓴 자전 소설이다. 그는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행 중 실종됐다. 그의 삶은 초기 항공운송 산업의 발전사이자 초기 야간 비행의 증거이고, 그가 남긴 소설 <야간 비행>보다 더 극적인 작품이었다.

누구나 이상을 꿈꾸며 살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끝내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 대부분 이상과 현실의 중간 지점을 찾아 순응하며 산다. 그러나 소설 <어린 왕자>와 <야간 비행>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생텍쥐페리(Antoine Saint-Exupéry, 1900~1944)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또 한 인간이 무자비할 정도로 꿈을 좇으며 살면 삶 자체가 작품이 되고 예술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1921년 항공정비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하면서 비행기를 자연스럽게 접했다. 하늘을 나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 조종 면장을 취득해 조종사가 됐고, 비행에 심취하게 됐다. 추락 사고로 의병제대를 한 뒤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계속 비행하기를 원했던 그는 1926년부터 항공우편 운송 조종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우편과 간행물을 비행기로 수송하는 민간 항공운송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 각국은 전쟁통에 쓰던 군용기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운송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됐다. 물론 각국에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등 여객운송도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항공기들은 전투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승객을 태워 수송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게다가 당시 대부분 항공기가 천과 금속을 섞어 제작한 복엽기(주 날개가 위아래로 장착된 형태의 항공기) 형태여서 기껏해야 3~10명의 승객밖에 태울 수 없었다. 당연히 수익성이 없어 많은 항공사가 국가 보조금으로 유지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해 파산과 합병을 반복하던 때였다.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시 수요가 많았던 항공우편 수송을 주력으로 해야 했다. 근대적 조건을 갖춘 여객기가 등장했던 193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항공우편 운송이 민간 항공운송 산업을 이끌었고, 그 일선에 생텍쥐페리가 있었다.

소설 <야간 비행>은 단순히 소설이 아닌 초기 항공우편 운송산업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이다. 오롯이 일선에서 조종사이자 관리자로 일한 셍텍쥐페리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집필했기 때문이다. 소설의 배경을 실제 그가 일한 서아프리카의 모로코나 세네갈이 아닌 아르헨티나로 옮겼을 뿐이다.

실제로 생택쥐페리가 야간 비행을 시작한 것은 1928년부터였다. 당시에는 비행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는데, 게다가 야간 비행이라면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민간항로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고, 항공기에 항법 장치가 전무했으며, 야간 비행 및 이착륙을 돕는 항공기 자체 조명 장비나 공항 조명 시설도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비행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낮에는 기상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악천후에 대비해 비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악천후를 예고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조종사가 야간 비행 중 실종되거나 이착륙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텍쥐페리는 항공정비병으로 복무한 경험을 살려 조종 업무는 물론 불시착한 항공기를 수리하거나 조종사 구난 비행을 병행하기도 했다.

야간 비행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 야간 비행 항로를 개척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다. 세계 첫 야간 비행 조종사로 기록된 영국의 윌리엄 화이트도 처음부터 야간 비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첫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 이후 유럽에서도 항공에 관한 관심이 폭발했는데, 자산가들은 자신의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조종사들의 각종 비행 기록에 거액을 후원했다. 윌리엄 화이트의 최초 야간 비행도 1910년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약 300km를 가장 빨리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는 시합에서 나온 기록이다. 그는 경쟁자에게 뒤처지자 목숨을 걸고 4월 28일 새벽 2시 50분에 이륙을 강행했다. 악천후를 만나 비행을 포기하기 전까지 약 1시간 30분간 비행한 것이 세계 최초의 야간 비행 기록이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유인 동력 비행을 한 1903년도에서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인 데다가 우발적으로 나온 기록인 것을 보면 당시로써는 야간 비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항공우편 운송회사들이 야간비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도나 선박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다. 항공우편 운송이 각광받은 이유는 당시 우편 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철도나 선박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단히 빨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에만 비행하고 야간에는 비행장에 우편을 묶어놓다 보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철도와 선박에 확실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항공정비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 조종 업무는 물론 불시착한 항공기를 수리하거나 조종사 구난 비행도 병행한 젊은 시절의 생텍쥐페리.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종사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몸을 던져야 했다. 생텍쥐페리는 1931년 야간 항공우편 수송 일선에서 일하며 겪은 경험, 삶에 대한 고뇌와 번민을 파비앙과 리비에르라는 주인공에게 동시에 투영한 소설 <야간 비행>을 세상에 내놓았다. <야간 비행>은 야간 비행 조종사 '파비앙'과 비행 관리 감독 책임자 '리비에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많은 조종사가 예측할 길 없는 야간 비행과 악천후 속에서 불시착과 추락을 반복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기 항공운송 산업 현장을 생생하게 그렸다. 무엇보다 <야간 비행>은 우편 운송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려고 개인의 삶과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물론 당대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온전한 국가 없이 개인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을 몸소 경험했다. 그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위해 야간 비행이라는 목숨을 건 삶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파비앙이 악천후를 만나 실종되고, 실종된 남편의 안위를 묻기 위해 리비에르를 찾아와 흐느끼는 파비앙의 아내를 보면서 리비에르, 아니 생텍쥐페리는 국가를 위해 파편화되는 개인의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야간 비행이 안전을 확보하게 된 발판을 마련한 것은 1925년 미국 정부가 주관해 우편 비행기 운영에 관한 법안이 만든 이후다. 국가가 나서서 야간 항행 시설과 야간 이착륙을 위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나갔고, 이는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그리고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근대적 의미의 성능과 객실을 갖춘 여객기가 속속 등장했다. 그러면서 야간 비행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져 야간 비행을 위한 규정과 인프라 확산이 가속화됐다.

<야간 비행> 속 파비앙과 리비에르, 그리고 현실 속 생텍쥐페리에게 야간 비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과 죽음의 경계선이었다. 반면, 오늘날 우리에게 야간 비행이란 창밖으로 달과 별을 볼 수 있다는 보다 낭만적인 비행이 됐다. 그런 면에서 <야간 비행>은 우리의 야간 비행을 더욱 안도하게 하고,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소설일지도.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 생텍쥐페리.

타히티, 낙원의 또 다른 이름

글 여하연 칼럼니스트

이 세상에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위치조차 가늠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사람들에게 '타히티(Tahiti)'도 그런 곳 중 하나일지 모른다. 망망대해 남태평양 한가운데 덜렁 자리한 섬, 에메랄드빛 라군과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남태평양의 보석 같은 섬. 환상적인 휴가를 꿈꾸게 하는 그곳, 바로 타히티다.

French Polynesia

타히티는 사실 국가명이 아니라 남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의 118개 섬 중 가장 큰 섬의 이름이다. 크고 작은 두 섬이 지협으로 연결되어 표주박 모양을 한 섬에는 수도 파페에테(Papeete)가 있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수많은 섬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어준다. 타히티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라는 긴 이름을 대신하곤 한다. (본 기사에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타히티로, 수도가 있는 타히티는 타히티섬으로 표기하겠다.)

타히티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화가 폴 고갱의 덕이 크다. 문명 세계에 환멸을 느끼고 마흔 셋의 나이에 타히티로 떠난 고갱은 이국적인 풍광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현지의 아름다움을 강렬한 원색으로 화폭에 담았다. 고갱의 그림 속 모습처럼 타히티는 원시 생명력이 꿈틀댄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백사장, 수정 같은 라군뿐 아니라 높은 산과 열대우림, 양치식물로 뒤덮인 깊은 계곡, 시원한 폭포 등 다채로운 자연 풍광을 품고 있다.

타히티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심장

타히티 여행객 대부분은 한 섬에만 머물지 않는다. 타히티 섬으로 들어와서 모레아, 보라보라 등 적어도 한 곳 이상의 다른 섬을 찾는다. 보통 일정을 짤 때 여행 첫날과 마지막 날은 비행

편 때문에라도 타히티섬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타히티섬은 타히티에서 유일하게 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생동하는 도시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시장으로 향할 것. 시장에서는 그 도시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르 마르셰 드 파페에테는 현지인은 물론 여행자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시장이다. 총 2층 규모로 싱싱한 채소와 과일, 생선 등 먹거리부터 타히티 전통 의상, 모노이 오일, 노아노아 커피, 비누, 바닐라 등 타히티산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선물이나 기념품을 사려면 이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타투(tattoo)'를 할 수 있는 숍도 자리해 있다. 타투라는 단어는 타히티에서 유래했다.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타투는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성년이 되면 통과 의례로 몸에 문(moon) 타투를 새겼다.

시내 관광은 보통 바이에테 광장에서 시작된다. 바이에테는 타히티 말로 '물을 담고 있는 바구니'라는 뜻. 늪이 많아 지어진 이름이다. 도시에는 다양한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모여 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그라피티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완성도가 뛰어난 알록달록한 그라피티는 2014년 시작된 오노우(Ono'u)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완성한 그림들이다. 축제가 시작된 이래 타히티의 젊은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호주, 칠레,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가 타히티에 모여 파페에테 곳곳의 건물 외벽에 창의적인 그라피티를 남겼다. 그라피티는 주로 노트르담 성당과 그 주변에 모여 있다. 노트르담 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스트리트 아트 갤러리에서 이들 작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타히티섬에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발 2,200m가 넘는 오로헤나산과 아오라이산, 열대우림과 계곡, 크고 작은 폭포와 맑은 강도 있다. 고갱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원시적인 자연의 에너지를 체험하고 싶다면 타히티의 산악 지대를 둘러볼 것을 권한다. 파페누밸리(Papeneoo Valley)는 타히티섬 타히티누이의 중앙에 자리 잡은 오로헤나산에서 시작해 섬 북쪽 해안가로 이어지는 산악지대다. 산세가 험해 사륜구동 차나 쿼드 바이크를 이용한 투어에 참가하는 게 좋다. 웅장한 산속에 위풍당당하게 자리한 바이하루루와 프라하 폭포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돈다. 겹겹이 겹친 산 위로 운무가 흐르고 이름 모를 열대 식물과 꽃, 열매가 우거진 협곡 아래에는 계곡이 흐른다. 투어 중 폴리네시아 유적지 바이오테아 마라에를 둘러볼 수도 있다. 깊고 울창한 계곡 안에 있으면 타히티인이 말하는 특별한 에너지 '마나'가 느껴지는 듯하다.

1. 시내 중심에 위치한 르 마르셰 드 파페에테 전통시장. 다양한 품목이 있어 기념품을 구입하기 좋다.
2. 전통시장에 진열돼 있는 화려한 무늬의 파레오.
3. 타히티에서는 푸드 트럭 룰로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4. 타히티섬에는 다양한 산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산악 지대도 있다.

타히티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손꼽힌다.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라면 푸드 트럭 룰로트(roulettes)가 해결해줄 것이다. 바이에테 광장 항구 근처에 위치한 작은 광장에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푸드 트럭이 몰려온다. 룰로트는 프랑스어로 '주거용 트레일러'를 뜻한다. 여행객뿐 아니라 타히티 주민들도 일과를 마친 저녁 즈음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룰로트를 즐겨 찾는다. 타히티의 대표 음식인 푸아상 크루부터 미국식 버거와 스테이크, 타이 음식, 크레페, 중국요리까지 다채로운 음식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것은 '착한 가격'. 우리 돈 2만 원 정도면 물가 비싼 타히티에서 만족스러운 한 끼를 즐길 수 있다.

보라보라, 궁극의 물빛

타히티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튀르쿠아즈 블루, 일명 캔디 바 색깔의 바다를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타히티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 보라보라(Borabora)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착륙하기 전 기내는 '우아!' 하는 사람들의 감탄으로 가득 찬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비현실적인 물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 바다색이 아름다운 타히티에서도 보라보라섬의 물빛은 독보적이다. 소시에테제도의 리워드섬에 속하는 전형적인 환초섬으로 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투명한 라군이 매우 아름답

1

다. 시시각각 다채로운 빛깔을 자랑하는 물빛 때문에 몰디브와 비교되곤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보라보라에는 오테마누산이 있다는 것이다. 거대하게 솟아오른 오테마누산 덕분에 눈이 시원하다. 보라보라는 원주민 말로 '어둠 속에서 솟아났다', '신이 만들었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신성하게 여기는 이 섬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결혼식을 하는 커플이 많다.

보라보라섬을 둘러싼 바다는 수온이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덕에 휴양지로 개발되어 수상 방갈로 리조트가 모여 있는데, 모든 것이 각종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한 최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보라보라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샤크&레이 라군 투어다. 배를 타고 스노클링 스폿을 돌아다니며 가오리, 상어와 함께 헤엄치는 프로그램. 보트를 타고 에메랄드와 코발트 빛 바다를 지나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듯 투명한 바다에서 가오리와 함께 헤엄치며 직접 만져보거나 입맞춤도 할 수 있다. 깊은 바다로 나가 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노니는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한 후에는 상어들이 있는 포인트로 향한다. 지느러미 부분에 까만 줄무늬가 있는 것이 블랙팁 샤크다. 애니메이션에서만 본 상어와 함께 헤엄치는 진기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심해에서 헤엄치는 거대한 레몬 상어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니 바닷속 깊이 내려가는 건 금물이다. 바닷속 풍경에 익숙해지면 처음의 공포심은 짜릿함으로 바뀐다. 스노클링을 한 후에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모투(motu)로 가서 피크닉을 즐긴다. 싱싱한 재료로 만든 로컬 음식이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다. 환상적인 풍경을 만끽하며 시원한 타히티 히나노 맥주를 마시면 낙원이 따로 없다는 생각에 빠져든다.

수상 방갈로 리조트에만 머무는 것이 지루하면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보트를 타고 본섬 투어를 나선다. 마티라 비치는 CNN이 선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베스트 10'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는 곳이다. 보라보라의 유일한 공용 해변이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다. 완벽하게 가꿔놓은 리조트의 해안가와 다른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다. 한낮의 물놀이도 좋지만 해 질 무렵 하얀 모래사장과 노을이 내려앉은 고요한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도 좋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풍광 때문이기도 하지만 폴 고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타히티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히티인들의 낙천적이고 정열적인 에너지 때문일 것이다. 축복받은 자연에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타히티인들의 긍정적 마인드는 생활에 배어 있다. '이아 오라나(안녕하세요)', '마루루(고맙습니다)' 외지인이 두 단어만 말해도 그들은 스스럼없이 마음을 연다.

타히티 사람들의 낙천적인 성향은 그들이 즐기는 춤과 음악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타히티 사람들에게 춤과 음악은 생활의 일부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저녁이 되면 해변에 모여 전통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리듬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타히티의 유명 호텔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 식사를 하며 폴리네시안 댄스를 즐길 수 있는 디너쇼를 마련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하와이 훌라 춤의 원조가 타히티안 댄스다. 훌라 춤이 서정적인 매력이 있다면 타히티안 댄스는 훨씬 역동적이다. 여성의 춤을 '타무레', 남성의 춤을 '피오티'라 부른다. 빠른 템포에 탄력적으로 흔들어대는 허리 놀림을 보고 있으면 절로 흥이 난다. 남성들의 춤은 보다 박력 있다. 공연 막바지에는 관객과 함께 댄스를 즐기는 시간이 있다.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겨보기를. 몸에 새겨진 여행의 기억은 더 오래가는 법이니까.

1. 아름다운 물빛을 자랑하는 보라보라섬.
2. 보라보라에서는 바닷속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스노클링이 필수 코스다.
3. 저녁이 되면 해변에서 타히티안 댄스를 감상할 수 있다.

2

3

City Walk - World Map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세계지도에 색이 입혀집니다.
세계지도가 다양한 색으로 채워질 때까지
City Walk 여행은 계속됩니다.

남태평양 신비의 섬, 타히티의 관문

파아아 국제공항 Faa'a International Airport

글 **엄용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이하 폴리네시아)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연간 130만 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이용객이 드나드는 파아아 국제공항(Faa'a International Airport). 폴리네시아 최대의 섬, 타히티섬의 수도 파페에테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남태평양의 환상적인 풍경 아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신비의 섬, 타히티섬을 오가는 관문으로 존재하는 파아아 국제공항을 소개한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유일한 국제공항

폴리네시아의 수도 파페에테 서쪽, 파아아 지역에 위치한 국제공항. 소사이어티제도 동쪽에 위치한 윈드워드제도 중 하나인 타히티섬 북서쪽 끝자락에 자리한다. 지역 항공모함 에어 타히티(Air Tahiti)와 국제 항공모함 에어 타히티 누이(Air Tahiti Nui)의 허브로 기능하는 공항은 폴리네시아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섬을 오가는 관문이자 소속 섬들을 항공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에어 프랑스, 에어칼린, LAN 항공, 하와이안 항공….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편이 매일 이착륙하며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각 대륙을 연결한다. 공항 건설 당시 섬에 평지가 부족해 산호초가 있는 바다 일부를 매립한 뒤 활주로를 건설,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1961년 10월 16일 완공된 공항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3,420m 길이의 활주로 1개를 갖추고 있다. 연간 이용객 수는 129만 1,807명(2017년 기준), 공항 코드는 PPT(IATA), NTAA(ICAO)이다.

폴리네시아 전통 건축양식의 혼재

커다란 지붕이 산처럼 솟아오른 공항 건물은 폴리네시아 전통 건축양식을 혼합한 형태로 국제선과 국내선을 공용하고 있다.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와 종합 안내소, 렌터카 사무실, 상점, 카페, 은행, 우체국 등 편의 시설이 자리한 터미널. 파아아 국제공항은 세계적 국제공항과 각 항공사가 인정하는 수준의 서비스와 품질 표준에 도달하고자 2016년 항공기 주차 구역 개조, 활주로 재정비 및 국제선 도착 터미널 투자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전면적 리모델링을 감행했다. 통풍이 잘되고 밝은 조명이 가득한 내부, 재구성하고 확장한 공공 터미널은 항공편 관리를 최적화하고 부티크 및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공항의 매력을 더했다. 부드러운 타히티 음악의 선율과 함께 달콤한 꽃향기가 환영 인사를 건네는 파아아 국제공항의 입구에서는 고유 의상을 입은 매혹적인 여인들이 여행객들에게 꽃으로 장식한 '레이'를 걸어준다.

섬 구석구석, 에덴동산을 완성하는 국내선

높은 화산섬과 저지대 산호섬이 포함된 118개 유인도로 이뤄진 군도. 남태평양 한가운데 400만㎢에 흩어져 있는 섬들은 라군 주변으로 크고 작은 무인도와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총 5개의 제도(소시에테제도, 투아모투제도, 갬비어제도, 마르키즈제도, 오스트랄제도)로 이루어진 폴리네시아의 해양 섬들, 푸른 바다와 다양한 생물, 높은 산과 울창한 숲은 지상 최고 낙원의 모습으로 섬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더없이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곳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보라섬을 통하는 관문, 파아아 국제공항에서 보라보라섬 북쪽 끝 모투무테(Motu Mute)의 공항까지 에어 타히티 항공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다. 약 45분 걸리며, 항공권은 공항에서 바이타페 마을까지 이동하는 보트 요금을 포함한다. 그 외 이스터섬 등 폴리네시아의 크고 작은 섬을 연결하는 노선, 파아아 국제공항에서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내선으로 유명하다.

이륙을 준비 중인 에어 타히티 누이.

파아아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에게 꽃으로 장식한 '레이'를 걸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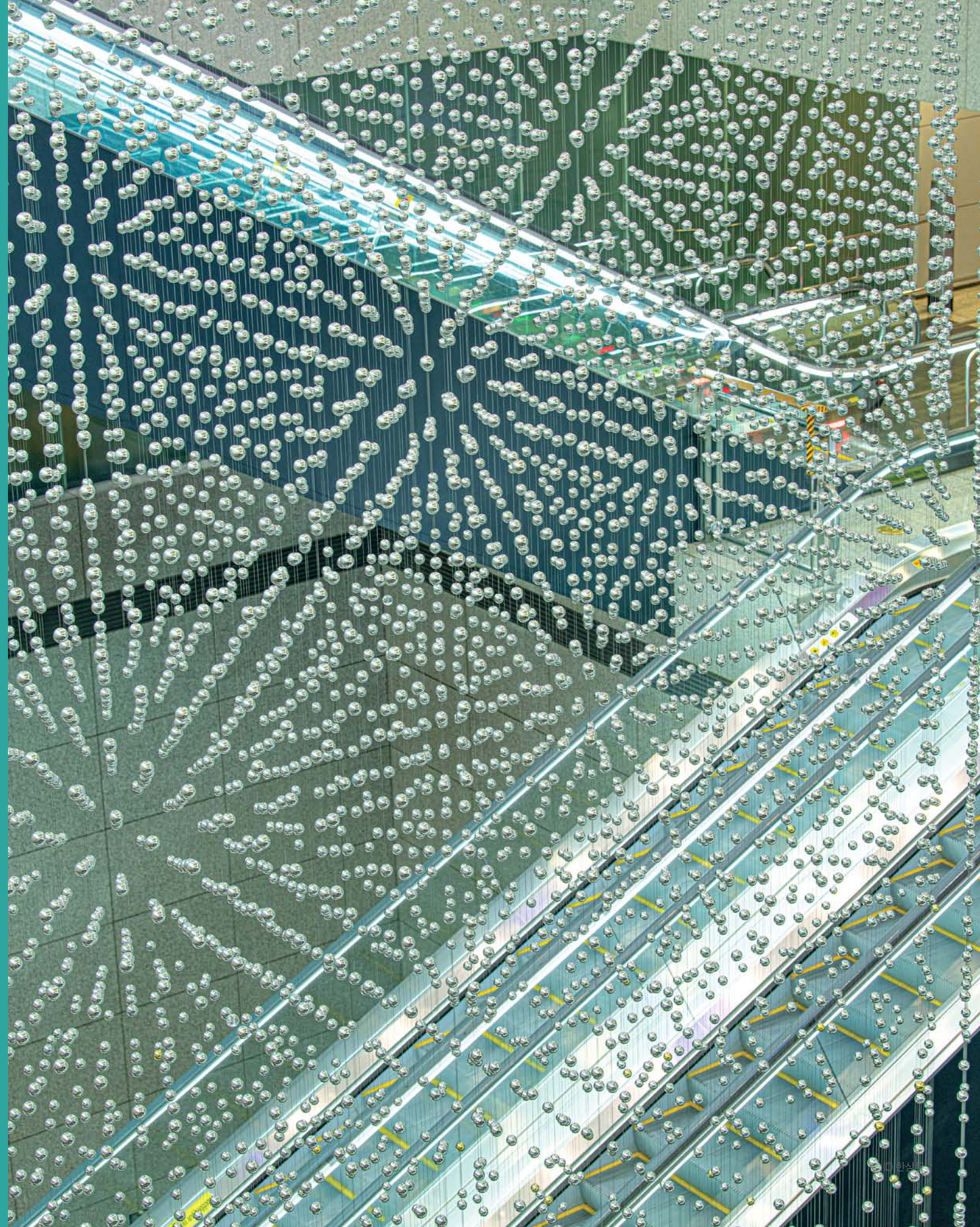
폴리네시아의 섬과 바다는 지상 최고 낙원의 모습으로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Exceptional Airport

54
Air Focus 1
대한민국의 항공문화 발전을
뒷받침하다
국립항공박물관

60
Air Focus 2
국내 유일, 국내 최초
항공 전문 박물관으로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초대관장

62
Air Lounge
인천국제공항 뉴스



국내 유일,
국내 최초 항공 전문 박물관으로

대한민국의 항공문화 발전을 뒷받침하다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미래의 첨단과학 기지가 이런 모습일까. 비행기 제트엔진의 터빈 모양을 모티브로 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은 한눈에 이곳이 국립항공박물관임을 짐작하게 했다. 게다가 전시 내용도, 그 메시지도 충실한 내부의 전시 공간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이렇게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7월 5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2

우리나라 항공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의 위엄을 보이다

항공과 관련한 전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내 유일한 항공 전문 박물관인 국립항공박물관이 곧 개관한다. 국내에는 이미 항공 관련 박물관이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교육이나 산업, 위락 중 한 분야에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세계 6위 항공운송 국가이자 12년 연속 공항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항공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 비행기 제트엔진의 터빈 모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내부 중앙 홀 전경.
2. 국립항공박물관 전경.

이에 따라 2015년 국립항공박물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고, 6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드디어 국민 앞에 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국립항공박물관 임직원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항공 박물관을 둘러보며 최적의 전시를 위한 수많은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다른 박물관과 다른 지향점을 세웠다.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첨단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되 스토리텔링을 통해 온기를 담고, 성인은 물론 어린이, 학생, 청소년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 그것이다. 그간 산재되어 있던 항공문화 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전시·연구·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항공문화 발전의 동력 기관이자 연구 기관, 대국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다짐은 부지면적 2만1,000㎡,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전시 관람 공간과 체험 공간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시련의 순간, 가장 높은 꿈을 꾸었던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발자취를 따르다

올해는 항공역사에 있어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세계 최초 비행기가 발명된 지 117년이 되는 해이자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스에 한인비행학교를 세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자. 국립항공박물관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보이는 전시관은 항공역사관으로, 국립항공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세계 항공역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준다. 동서양을 아울러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은 계속되었고, 도전과 성공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비행기를 처음 꿈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론 동양 최초의 비행체인 연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또 미국 더글러스사가 개발한 21인승 쌍발 여객기 'DC-3'에 실제 사용된 엔진인 'R-1820 엔진'의 모습도 직접 볼 수 있다.

이어 대한민국의 항공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우리나라 항공역사는 일제강점기 활발했던 독립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국립항공박물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전시물 총 7,000여 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전시물이 이곳에 모여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에 대한 기사를 다룬 <윌로스 데일리 저널>은 미국 현지 신문으로 국내외 유일한 원본이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이용근 비행사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장교 1호 자격증 역시 귀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 외에도 한인비행학교 학생들의 훈련기를 원형 그대로 제작한 '스탠더드 J-1'과 한국인 최초로 우리나라 하늘을 날았던 안창남 비행사가 탔던 '금강호'가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공중에서 그 위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민간 항공사인 대한국민항공사(KNA)에서 사용한 첫 민간 여객기 '스테이션 왜건'도 가치 있는 전시물이다.

1. 1층 항공역사관에서는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2. 2층 항공산업관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조감도
3.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창사 40주년 기념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

1

세계적 항공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이라는 역경을 헤치고 세계적 수준의 항공 강국으로 성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항공운송 국가이자 12년 연속 공항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항공기 제작 세계 12위, ICAO 이사국 7회 연속 선임 등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비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항공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립항공박물관 2층에 위치한 항공산업관이다.

항공산업관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진출 분야와 국제적 위상을 공식 통계와 대표 전시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항공운송 산업과 공항 전시실 항공운송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와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 공항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전시관 역시 이 항공산업관이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세계 1위뿐 아니라 세계 최고 공항상 11회 수상, 세계 최고 공항 면세점상 8년 연속 수상, 글로벌 화물 공항 최우수상, 세계 최고 환승 공항상 5년 연속 수상, 2018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 글로벌 및 아시아 부문 최고 직원 서비스상 등 인천국제공항의 성과가 자세히 열거되어 있고, 세계 국제 여객 순위로는 5위, 세계 국제 화물 순위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밖에도 탑승관리(출입국 심사, 세관, 검역 등), 운항 관리(항공사, 지상 조업 등), 항공교통 관리(관제, 노선 관리 등)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자세히 전시되어 있어 공항의 모습을 색다른 느낌으로 둘러볼 수 있다. 또한 항공기 개발 과정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항공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다방면에서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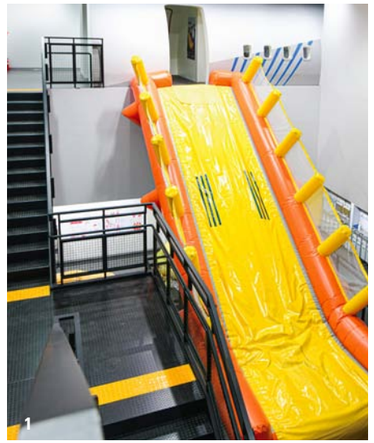
2

드론과 우주여행 등 앞으로 펼쳐질
상상 속 미래를 실현하다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면 3층에 위치한 항공생활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무인항공기도 전시되어 있어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뿐 아니다. 드론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는 저고도 무인항공기 교통 관리 체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야도 넓혀준다. 또 항공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져 우주 비행기로까지 확장된다. 언젠가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 호텔로 여행을 떠날 날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다양한 항공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미래 도시에 대한 특수 영상도 큰 스크린을 통해 나타난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창사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실은 내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로 바뀌고, 기념일에 맞춰 안창남, 권기옥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특별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3



1. 안전 훈련 체험을 통해 기내 안전과 질서를 숙지할 수 있는 기내훈련체험관.
2. 국립항공박물관 마스코트 '나래'가 공항 체험을 돕는 어린이공항체험관.
3. 2층 항공산업관에서는 조종과 관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4. 국립항공박물관 공식 마스코트이자 큐레이터 '나래'
5. 대한민국의 항공역사 전시실에서는 항공 선구자 안창남 선생이 이끈 '금강호' 등 다양한 실물 항공기를 만날 수 있다.

차별화된 최첨단 항공 체험을 한곳에서 즐기다

국립항공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항공 체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전체 구성 중 약 60%는 전시 공간, 나머지는 교육·체험과 편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박물관보다 유독 교육·체험 공간의 비중이 높다. 또 체험을 통해 항공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항공인을 위한 동기부여, 전문가 수준의 직업 체험까지 이어져 그 의미도 깊다.

기내체험관은 꼭 항공인을 꿈꾸지 않는 사람도 체험해볼 만한 프로그램으로 꾸며놓았다. 기내 안전 훈련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안전을 위한 기내 질서를 숙지하게 되는데, 위험상황에서 탈출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게다가 승무원이 직접 체험을 지도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멋진 곡예 비행을 보며 한 번쯤 파일럿을 꿈꿔봤다면 우리나라 공군, 블랙이글제트기를 조종해볼 기회도 주어진다. VR을 통해 조종석에 동승하면 블랙이글 기구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회전하며 생생한 경험을 선물한다.

더 나이가 어린 유아라면 어린이공항체험관에서 경험하는 '나래'와의 시간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EBS 애니메이션 <슈퍼윙스>가 기증한 박물관 캐릭터 나래는 파란색 모자에 노란 고글을 쓴 비행기 모양으로, 국립항공박물관 공식 마스코트이자 큐레이터다. 나래와 함께 뛰어놀며 재미있게 공항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나래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종사와 관제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조종관제 체험은 국립항공박물관의 자랑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인천국제공항 관제탑과 b747 조종석이 서로 연계된 체험실에서는 수십 년 경력을 쌓은 관제사와 조종사의 지도 아래 실제와 다를 바 없는 관제 체험과 조종 체험이 이루어진다.

또 점차 그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 항공 레포츠에 대한 체험도 가능하다. 경비행기 시뮬레이터와 드론 레이싱,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VR을 통해 다양한 항공 레포츠를 경험해볼 기회도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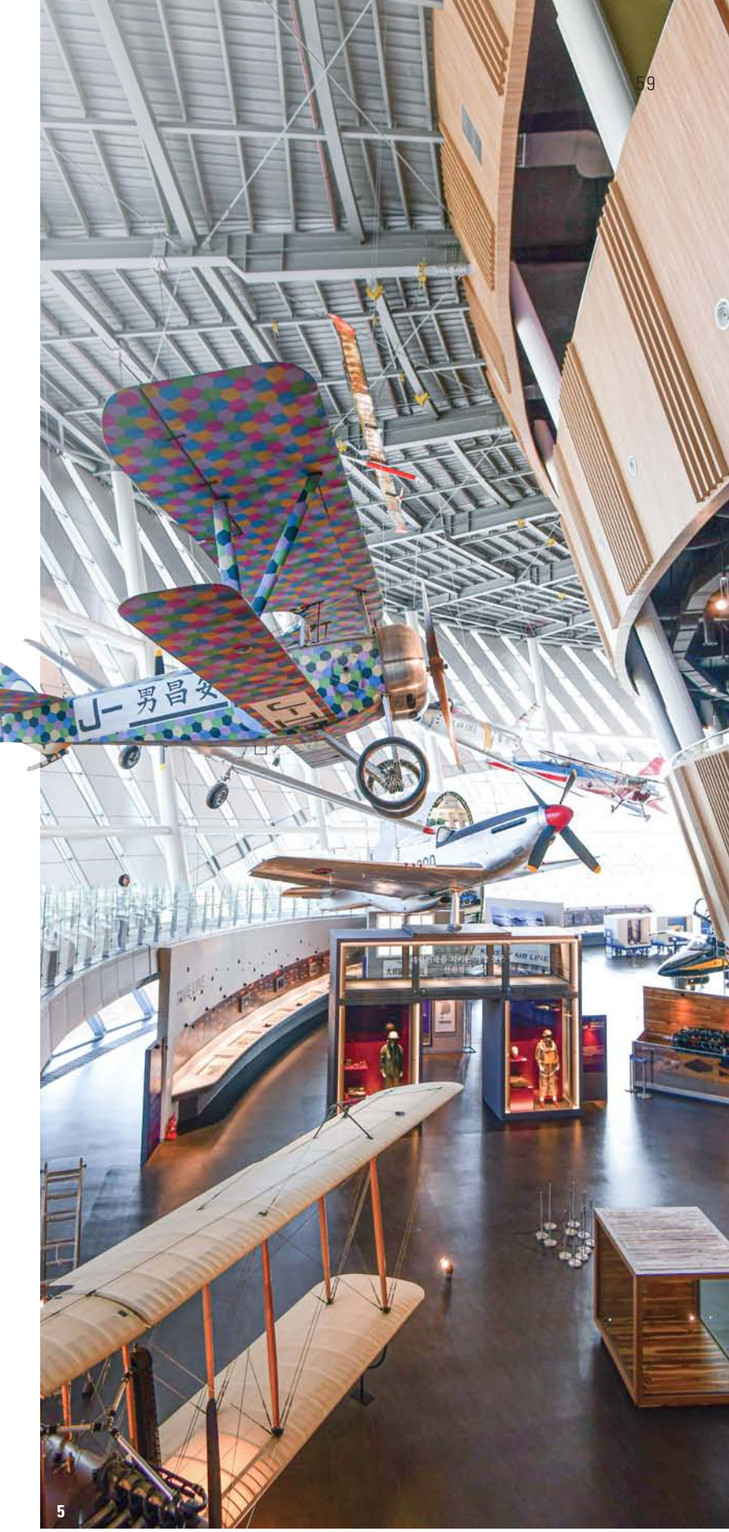
이렇게 다양한 항공 체험을 했다면, 도서 열람과 강연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항공 전문 복합 문화 공간, 항공도서관에서 보유 장서 2만여 권을 찾아보며 그 원리와 심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개인부터 가족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그리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관람객을 지키다

개관을 앞둔 국립항공박물관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관람객을 지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박물관 관람객에 대해 철저히 발열 체크를 하고 순차적 입장, 관람 거리 2m 이상 유지, 손소독제 비치, 관람객 손이 닿는 곳 수시 소독, 주 1회 이상 방역 소독, 수시 환기로 전시실 내 공기 질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 이번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사이버 뮤지엄을 구축해 감염병 유행으로 박물관을 휴관할 때에도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등도 이용해 박물관을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 소규모 전시·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제한적이나마 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선물하고자 계획 중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항공산업, 이를 증명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문화 유산을 지켜나가는 한편, 미래의 항공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성장 제트엔진을 가동했다.



대한민국 항공의 뿌리부터 기둥, 앞으로 열릴 열매까지 한곳에 담다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초대관장

글 **강나온** 사진 **한상무**

항공의 역사, 항공의 현재, 항공의 미래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을 앞둔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초대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의 의미를 "항공의 역사, 항공의 현재, 항공의 미래"로 설명한다.

"역사가 현재이면서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빛나는 항공역사를 발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공산업의 현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찾는 많은 청소년이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7월 5일을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일로 정한 데에도 의미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인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스에 비행학교를 설립한 개교일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7월 5일이기 때문이다.

"항공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항공역사가 시작된 것은 항일 독립운동 때입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독립을 위해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 항공산업이 있으니까요. 개관일을 7월 5일로 정한 것은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항공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그 정신을 미래에도 전승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또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 초대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에 현재 정상에 우뚝 선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대한 자부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항공 분야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자체 초음속기를 개발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한 저력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서비스 분야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켜오고 있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자랑스러운 공항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항공의 현주소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이 항공과 관련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조종 체험, 관제 체험, 경량 비행기 체험 등 다양한 항공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니 미래를 향한 준비 역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가능한 셈이다.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국립항공박물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항공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리려 하고 있다. 가까이에 있는 김포공항은 물론 각종 항공사 사무실,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계하는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 과정에 있어 박물관과 공항 현장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에 국립항공박물관 분관을 개관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인천국제공항이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의 성과가 저희 박물관에 고스란히 있어 큰 힘이 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자랑스러움을 모두 담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분관을 개관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에는 옥상 전망대를 만들어 김포공항 활주로에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카페도 완공할 것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공역사, 항공산업의 위상을 소개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고자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방문해주세요. 국민의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뵙겠습니다."

2020 2nd | AIRPORT NEWS | VOL. 72

1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인천국제공항,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공항, '덕분에 챌린지' 동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4월 16일 시작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존경,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의 사진 또는 영상을 '#덕분에챌린지', '#덕분에캠페인', '#의료진덕분에'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은 앞서 한국관광공사 1330 콜센터로부터 참여 주자로 지목받았으며, 지난 5월 2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과 상주 직원이 함께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인천공항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입·출국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현장 근무자에 공적 마스크 약 10만 장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상주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여객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보안, 검색, 환경미화, 소방대 등)를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적 마스크(KF94) 9만 5,500장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현장 근무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관계 기관과 인천공항 현장 근무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확보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가 방역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 고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9조 제1호에 따라 현장 근무자를 위한 마스크 9만 5,500장을 배정받았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9조 제1호: 출고된 마스크는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우선 배분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회사 및 협력사의 감염 예방용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매 비용을 계약 금액으로 인정해 공사가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공적 마스크 구매 대금 역시 인천공항공사의 예산을 전액 활용함으로써 인천공항 상주 직원들이 감염 예방용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여객 최접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인천공항공사, 전국 200개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10억 원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한다. 공사의 긴급 자금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로 지원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사는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신청을 진행했으며, 총 399개 신청 업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2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사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비대면 심사를 도입하는 등 자금 신청에서 심사까지 과정을 최소화했으며,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해 여행업, 교육·서비스업, 행사 대행업, 화훼업 등 코로나19로 집중 피해를 입은 업종과 정부 권고를 따른 다중 이용 시설 업종을 심사 과정에서 우대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기부금 17억 원 취약계층 대상 지역 화폐로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12일 인천시 중구청 제2청사에서 인천시 중구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약 17억 원을 전달했다.

공사의 기부금은 인천시 중구청 및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인천시 중구 거주 저소득층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중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5월 20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령이 가능하며,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e음카드 가맹점에 한해 오는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기부 금액의 일부를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지원 활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천공항공사는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역시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기부금>
- **지원 대상** : 인천시 중구 거주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 **수령일** : 5월 20일부터
- **수령지**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용처** :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e음카드 가맹점
- **사용 기한** : 5월 20일~8월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종도·용유도 소재 11개 학교 방역 봉사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초·중·고교 개학에 맞춰 보안검색 용역 3사와 함께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용유도 소재 1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방역 봉사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5월 23일 인천 영종중학교 방역 봉사를 시작으로 2차 등교 개학일인 5월 27일 이전까지 5개 학교에 대한 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한 봉사 활동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인천공항공사 및 보안검색 직원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학업 및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말 등을 이용해 방역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방역 및 안전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방역 작업 과정에서도 환기 및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직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방역 봉사 활동이 지역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 인천공항, 英 스카이트랙스 '최고 터미널상' 및 '최고 환승공항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영국 스카이트랙스(Skytrax)社가 주관하는 '2020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최고 터미널상'과 '최고 환승공항상'을 수상했다.

스카이트랙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 서비스 전문 컨설팅 회사로, 매년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의 핵심 서비스인 체크인, 도착, 환승, 쇼핑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20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며,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중 터미널과 환승공항 2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은 공항 운영에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접목해 여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항 곳곳에 국내·외 작가들의 대형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편리하고 신속한 공항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인천공항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최고 터미널상'과 함께 인천공항은 편리하고 신속한 환승 절차와 다양한 환승 편의 시설, 다국어 환승 안내 서비스, 맞춤형 환승 프로그램, 글로벌 캐릭터를 활용한 여객 맞춤형 환승 광고 제작 등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 세계 최고 환승 공항의 자리에 올랐다.

3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 분야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시행된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에서 공기업 1군 10개 공기업 중 최고 점수로 A등급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안전 중심 경영 체계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올해 1~2월 약 2개월에 걸쳐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분야는 기관의 안전보건 체계, 안전보건 활동 계획과 수준, 성과 등 4개 분야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는 사장 직속의 안전혁신실을 신설하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 운영을 개선하는 등 국민 안심(ANSIM: Airport Non-defect Safety & Innovative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에 의한 시스템 안전 관리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부 지침 적극 이행 등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난 3월 5일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가 방역 활동의 최전선으로서 '인천공항, COVID-19 Free Airport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항 방역 강화 및 세계 최초 출국여객 3단계 발열 체크 시행 등 출·입국 전 과정에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 국내 대표 작가의 예술 작품 선보인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작가인 서도호, 박선기, 박제성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여객들에게 선보인 미술 작품은 서도호 작가의 '집 속의 집(Home within Home)', 박선기 작가의 '집합190707(An Aggregation 190707)', 박제성 작가의 미디어 아트 'Universe'로, 인천공항 제1교통센터, 셔틀트레인 승강장, 탑승동에 각각 설치 및 전시했다.

공사는 장소의 공간적 특성과 여객 동선을 고려해 해당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공항 어디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공항의 기능을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국내외 여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위상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인천공항 탑승동 3층 중앙에 미디어 아트 상설 전시 공간인 '미디어 아트 콘코스'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박제성 작가의 'Universe'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맷 파이크가 설립한 영국 Universal Everything의 'We All Dream of Flying'을 시작으로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의 새로운 작품을 매월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인천 하트포트 아트 어워드'를 통해 실력 있는 청년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해당 작가의 작품을 인천공항의 '미디어 아트 콘코스'에 전시함으로써 청년 예술가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확대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5 인천공항공사, 해외 공항 사업 확대를 위해 KB자산운용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 14일 KB자산운용과 인천공항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KB자산운용은 인천공항공사의 세계적 공항 운영 노하우와 KB자산운용의 14조 원 규모의 대체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공항 사업 초기 발굴 단계부터 공동 수주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공사의 해외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깃 공항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수익 모델과 서비스 증대 방안을 수립하고, KB자산운용은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6호를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신공항 개발, 터미널 위탁 운영, 지분 투자 등 해외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라며 "해외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협약 체결식에 함께 참석한 KB자산운용 이현승 대표이사 역시 "대체투자시장 선두 주자 지위에 걸맞게 KB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역량을 집중, 인천공항공사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성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DIEU, MORE&BEYOND

2020년 9월, More&Beyond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동안 More&Beyond를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More&Beyond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9월, More&Beyond는
공항 가족 소식지 <사람과 하늘>과 통합해
더욱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는 가을,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거진을 기대해주세요.

힘내요, 대한민국!
인천공항도 함께 합니다.

함께 지켜가요! COVID-19 Free Airport

Incheon Airport